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유민상 · 김기현 · 김나영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저 자 유민상, 김기현, 김나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외부집필진_정재현(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니트 청년(youth NEETs)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니트 청년들이 조기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음.
- 이 연구는 니트 청년의 개념과 현황, 니트 청년 발굴 관련 사례 검토, 니트 청년 발굴 현황 검토 및 당사자와 실무자 면접,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 방법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음.

■ 연구내용

- (개념정의 및 현황) 니트 청년 개념 정의 및 추이 분석
- (사례조사) 니트 청년, 위기 가구 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운영실태분석)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발굴현황 분석 (청년 당사자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발굴현황 및 욕구 분석 포함)
-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방안) 교육부, 고용부 등 행정데이터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방안 정리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및 실무자 면접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
 - 연구조사 결과의 종합적 논의와 확산을 위하여 NYPI 제18차 청년정책포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 발굴 방안>을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학계, 현장 실무자가 참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니트 청년은 누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 우리나라에서 광의의 니트 청년은 청년 5명 중 1명 정도이며, 협의의 니트 청년은 청년 15명 중 1명 정도로 볼 수 있음.
- 니트 청년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 니트 청년은 발굴이 어려우므로 '닿을 수 없는 대상에게 닿기' 전략 필요
 - 행정데이터를 통해 대상이 1차로 특정되어도, 결국 당사자를 만나고, 설득하고, 서비스 연계의 역할이 필요. 따라서 행정데이터 혹은 빅데이터를 통한 발굴과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은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발굴 방법은 복합적이어야 함. 아웃리치 전담인력과 전문적 서비스 필요.
 - 발굴 방법은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서비스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유관기관 연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과 유관 기관 간의 네트워크와 신뢰가 매우 중요함.
- 니트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교육데이터를 통한 연계에서의 직업계고/일반계고/고등교육 졸업자의 파악이 가능하나, 고용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특정 및 아웃리치를 위한 정보로 사용하기에는 법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고용데이터와 교육데이터의 연계는 대상자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학력별 니트 발생 추이 분석 결과는 관련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규모 추정 가능성과 아웃리치 데이터로의 한계가 있으며, 아웃리치 데이터로 활용하더라도 아웃리치 인력, 매뉴얼, 체계구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제언의 방향과 원칙 3가지를 정하고, 정책제언 4개 영역 총 1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연구의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사전적 예방 및 조기개입 원칙, ②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원칙, ③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보장 원칙
- 세부 정책과제는 4개 영역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영역1)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영역2) 발굴 방안 다양화, (영역3)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영역4)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등임.

표 I. 본 연구의 4개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

정책과제
영역 I.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영역 I-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지원
영역 I-2.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식도 제고
영역 II. 발굴 방안 다양화
영역 II-1.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
영역 II-2.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영역 II-3. 도래추천을 통한 발굴
영역 II-4.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발굴
영역 III.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영역 III-1. 발굴 이후 서비스 연계 보장: 서비스 체계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III-2. 하나의 우산 속 니트 청년 정책: 서비스 체계의 통합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IV.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영역 IV-1. 맵핑: 니트 청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별)
영역 IV-2. 트래킹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니트 청년의 활성화 지원보장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23-수시0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4
1) 니트 청년 개념 정의 및 추이 분석	4
2) 니트 청년 발굴 선행연구 검토	5
3)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분석	5
4)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 방안: 교육, 고용데이터의 연계	5
5)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적 발굴방안 마련	5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국내외 사례연구	6
3) 면접조사	6
4) 전문가 자문	6
5) 포럼 개최	6
4. 보고서의 구성	7

II. 니트 청년은 누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니트 청년의 규모, 특성, 추이

1. 개요	11
2. 니트 청년의 정의와 특성	11
1) 개념 정의	11
2) 니트 청년의 특성	13
3. 니트 청년의 규모, 발생 추이	14
4. 시사점	18

III. 니트 청년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1. 개요: 닿기 어려운 대상에게 닿기	21
2. 위기 청년 발굴에 관한 국내외 사례 검토	22
1) 국내 학교밖 청소년 정보 연계 입법 사례	22
2) 직업계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사례	26
3)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 사례	27
4) 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발굴 사례	28
5)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유럽국가 사례	30
3. 시사점	32

IV. 니트 청년의 발굴 현황은 어떠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1. 개요	35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실태	36
3. 니트 청년 및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	39
1) 면담개요	39
2) 참여자 인터뷰 결과	41
4. 시사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48

V. 니트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 1. 개요 53
- 2. 교육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54
 - 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54
 -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61
- 3. 고용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67
 - 1)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개요 67
 - 2)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68
 - 3) 청년층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분석 70
 - 4) 청년층 비구직자 규모 72
 - 5) 청년층 비구직자 특성 74
 - 6) 고용노동데이터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향 79
- 4. 교육-고용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방안 80
 - 1) 단기적 방안 80
 - 2) 중·장기적 방안 82
- 5. 시사점: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85

VI.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및 제언의 방향과 원칙 89
- 2. 세부 정책과제 90

참고문헌 97

표 목차

표 II-1. 니트 청년의 정의 기준	12
표 II-2. 연령별 고용율 추이	17
표 II-3.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추이 및 구성	17
표 III-1. 학교 밖 청소년법 제정 및 개정 당시 연계 내용	23
표 IV-1. 면담 개요	39
표 IV-2. 청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40
표 IV-3.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 프레임	40
표 V-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55
표 V-2. 직업계고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규모	61
표 V-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62
표 V-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청년 니트 규모 추이	64
표 V-5. 고용노동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상태 구분	68
표 V-6. 성별·연령대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71
표 V-7. 지역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71
표 V-8.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3개월 내 취업 기준]	72
표 V-9.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6개월 내 취업 기준]	73
표 V-10.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12개월 내 취업 기준]	73
표 V-11.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24개월 내 취업 기준]	74
표 V-12. 성별·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75
표 V-13.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75
표 V-14. 성별·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76
표 V-15.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77
표 V-16. 성별·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78
표 V-17.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78
표 V-18. 고용데이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80
표 V-19. 교육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83
표 VI-1.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 발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90
표 VI-2. 정책제언 I :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91
표 VI-3. 정책제언 II : 발굴 방안 다양화	92
표 VI-4. 정책제언 III :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93
표 VI-5. 정책제언 IV :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94

그림 목차

그림 II-1. 니트 청년 구성의 다양성	13
그림 II-2. OECD 국가들의 니트 청년(15~29) 비율 비교 (2017 자료 기준)	14
그림 II-3. OECD 국가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 비교	15
그림 II-4. 한국형 니트 규모의 추정(15~34세, 2003~2022)	16
그림 III-1.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방안	24
그림 III-2. 꿈드림센터 구축 현황(2015~2022)	25
그림 III-3.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 실행과정(안)	26
그림 III-4. 중앙취업지원센터 고졸만 잡 홈페이지	27
그림 III-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과정 흐름도	28
그림 III-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주요정보	29
그림 III-7. 유럽 청년보장제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방향	30
그림 III-8. 유럽 청년보장제의 시행 국가들의 아웃리치(outreach) 수행 범위	31
그림 IV-1.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36
그림 IV-2.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37
그림 IV-3.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도전)	38
그림 IV-4.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 (도전+)	38
그림 V-1.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추이(2020~2022)	58
그림 V-2. 성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58
그림 V-3. 전공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60
그림 V-4. 성별,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66
그림 V-5. 전공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66

그림 V-6.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69
그림 VI-1. 학교 유형별 조기개입 및 연계 방안(안)	91
그림 VI-2. 유럽 청년보장제의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접근	93
그림 VI-3. 니트 청년에 대한 아웃리치-연계-활성화의 맥락에서 맵핑과 트래킹(모니터링)	9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된 연구로 고용노동부의 니트 청년 발굴 방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이 긴급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니트 청년의 특성과 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 후, 대안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니트 청년들이 조기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란 취업,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니트 청년(youth NEETs)이란 니트 상태를 경험하는 청년을 의미하는데 니트 청년의 연령적 범위는 국가나 사회마다 다르다. 유럽은 15-24세 혹은 15-29세를 주로 정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9-34세를 주로 정의한다. 유럽에서는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후 미성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기본법의 연령범위에 의거해 19세 이후 초기 성인기 이후 기간만 포함하고 있다. 니트 시기는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기에서부터 초기 성인기 이후까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니트 청년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역사가 무척 짧다. 유럽은 2010년대부터 유럽 연합의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이 확대되어 이루어지면서 니트 청년을 위한

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지원이 체계화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야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이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3년 현재 본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포함되어 있어 몇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니트 청년 지원사업의 핵심은 니트 청년에 대한 발굴이다.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은 니트 청년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을 구직단념청년으로 규정하여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니트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 특성상 사회 참여 의지가 낮아 참여자 모집에 한계가 있다. 이 사업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간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있는데, 구직단념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청년 수당 사업 등에 비해 참여자 모집 및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사후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니트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과 체계를 모색하여 취약청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은 두 가지 틀로 검토하였다. 하나는 전통적인 대상자 발굴 방법인 아웃리치(outreach) 방법, 다른 하나는 새로운 대상자 발굴 방법인 데이터를 통한 방법이다. 아웃리치 방법은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참여자 모집 방법을 검토하고 청년 및 실무자 의견을 취합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를 통한 방법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의 통합방법을 통한 발굴 방법을 모색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니트 청년 개념 정의 및 추이 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니트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국제적으로 OECD의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식교육으로 중등후 교육 및 훈련과정이 없기 때문에 니트 규모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니트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니트 규모가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 니트 청년 발굴 선행연구 검토

여기서는 니트 청년 발굴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위기 청년 발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입법사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3)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분석

현재 니트 청년 발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참여자 발굴모집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기관의 지역 기반 협업 활동과 홍보활동을 통한 참여자 발굴 사례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경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 방안: 교육, 고용데이터의 연계

여기서는 교육부와 고용부의 행정데이터를 각각 활용하여, 그리고 연계하여 니트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교육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발굴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대졸자 취업통계 조사 등을 활용한 발굴 방안이다. 고용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발굴은 워크넷과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한 발굴 방안이다. 교육부-고용부 행정데이터를 연계한 발굴은 대상자를 특정하여 규모를 파악하는 모니터링하는 형태이다.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지금보다는 나은 방식의 발굴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5)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적 발굴방안 마련

종합적으로 니트 청년을 전통적으로 발굴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발굴하는 방안, 그리고 발굴 이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 니트 정의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니트 청년 발굴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아웃리치(outreach)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청년 관련 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2) 국내외 사례연구

국내외 사례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고용분야,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해외 사례로 청소년과 청년기 니트 청년 발굴 사례를 분석하였다.

3) 면접조사

이 연구에서는 구직단념청년 참여사례 및 실무자들의 발굴 노력 사례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청년 대상으로는 개인심층면접(IDI)과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으며 총 9명의 청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초점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니트 청년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 감수를 진행하였다.

5) 포럼 개최

이 연구에서는 니트 청년 발굴 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2023년 9월 14일에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 발굴 방안’이었다.

4.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현재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발굴모집 실태를 분석하고, 니트 청년 대상 국내외 사업의 발굴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적 발굴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2장은 니트 청년의 규모, 특성, 발생 추이를 보고하였다. 니트 청년의 기본적인 규모와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3장은 니트 청년 발굴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로 니트 청년 발굴 방법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4장은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5장은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파트로 데이터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6장은 니트 청년 발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 제2장 니트 청년은 누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니트 청년의 규모, 특성, 추이

- 1. 개요
- 2. 니트 청년의 정의와 특성
- 3. 니트 청년의 규모, 발생 추이
- 4. 시사점

2

니트 청년은 누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니트 청년의 규모, 특성, 추이²⁾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니트 청년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니트 청년의 정의와 특징, 니트 청년의 규모와 추이에 대해 정리하고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및 발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니트 청년의 정의와 특성

1) 개념 정의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혹은 니트 청년이란 청년이라는 연령범위와 니트라는 지위 특성이 결합된 용어이다.

먼저 연령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청년 니트의 연령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15~29세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이는 성인 이행기의 지연과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Youth Guarantee를 Reinforced Youth Guarantee로 확대하고 연령범위를 확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는 과거에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 혹은 과도기(transition period)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청년의 범위를 성년기로 한정함으로써 과도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2)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취업, 교육, (공식) 훈련 지위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II-1>을 보면, OECD 기준의 니트 청년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하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을 야기하는데, 여기서 훈련은 비공식적 훈련이 아닌 공식적 훈련만 해당이 되어 사교육이나 민간훈련 시장이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니트 청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OECD 기준 니트 청년 규모를 산정하면 니트 비율이 일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 다양한 유형을 제외하고자 하는 ‘한국형 니트’ 개념 도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예를 들어, 입시학원과 취업학원 통학을 제외한 니트 기준(기준1), 여기에 육아와 가사를 제외한 기준(기준2), 여기에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 장애 등을 제외한 기준(기준3) 등이다.

요컨대 청년 니트는 청년이라는 연령범위와 니트라는 지위 특성의 결합이며, OECD 등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과 일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포괄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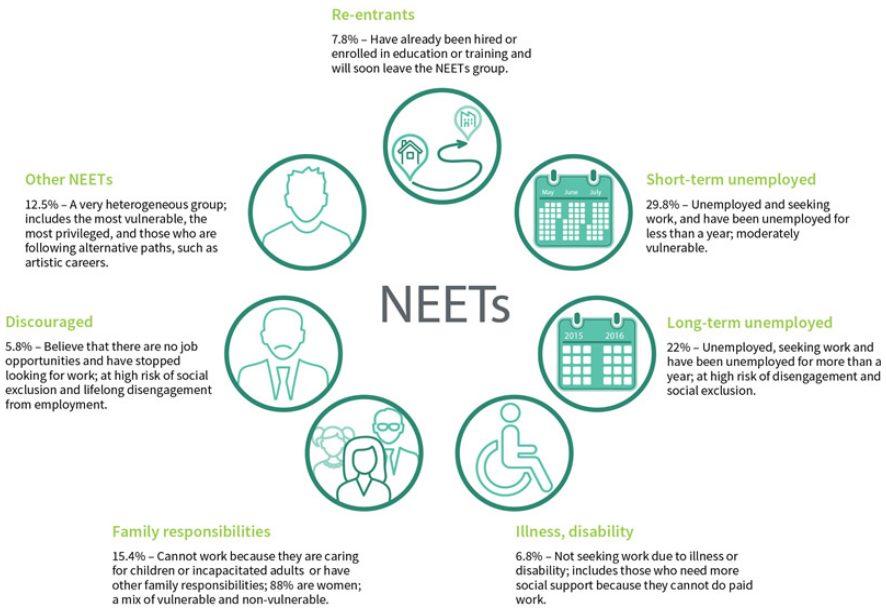
표 II-1. 니트 청년의 정의 기준

		OECD 기준	국내 선행연구 기준(예시)		
			기준1	기준2	기준3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실업자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비경제활동인구	정규 교육기관 통학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입시학원 통학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육아	포함	포함	미포함	미포함
	가사	포함	포함	미포함	미포함
	취업 준비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진학 준비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군입대 대기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심신 장애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쉬었음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타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출처: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2017: 2).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브리프』, 1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니트 청년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청년 니트는 니트족과 같은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니트는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고, 니트 청년은 그 상태를 경험하는 특정한 연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니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원인과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질적 집단(heterogeneous group)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니트 청년에 대한 정책은 니트 청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유로파운드 홈페이지(<https://www.eurofound.europa.eu/topic/neets>)

그림 II-1. 니트 청년 구성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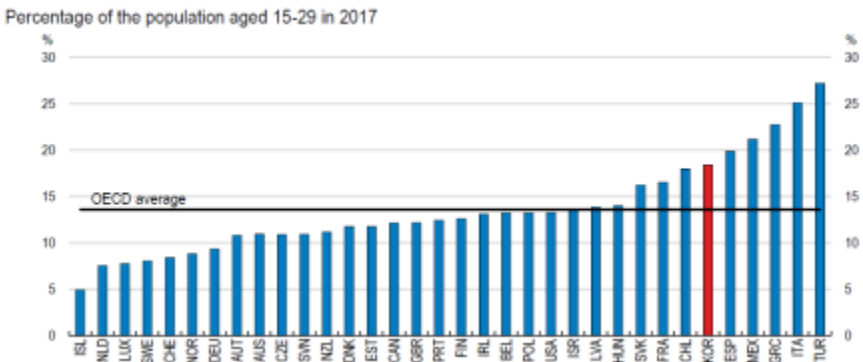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유로파운드(Eurofound)는 니트 청년을 재진입자(re-entrants), 단기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 및 만성질환자, 가족돌봄자, 구직단념자, 그리고 기타 니트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Eurofound, 2016).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개별

적인 서비스 혹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니트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니트 청년의 발생 규모/추이/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3. 니트 청년의 규모,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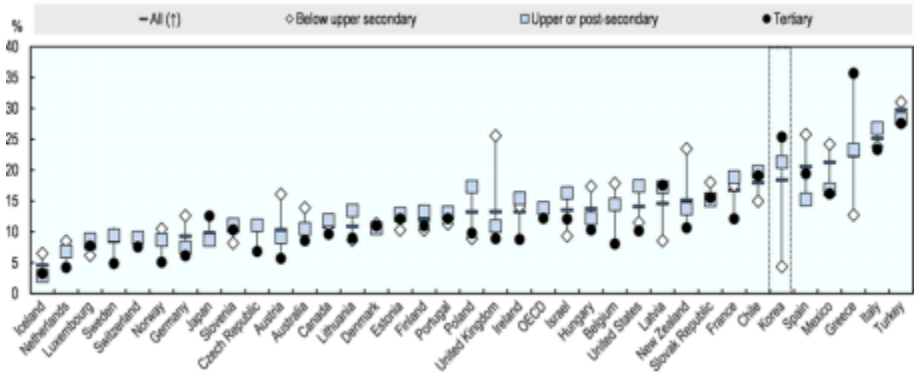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니트 청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니트 청년의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니트 규모와 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Jones, Randall S. & Beom, Jinwoan (2022)은 OECD Working paper에서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15-29세 니트 청년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이슬란드도 유일하게 5% 미만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 독일 등의 국가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청년 니트 비율은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출처: Jones, Randall S. & Beom, Jinwoan(2022). Policies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Korea. OECD working paper.

그림 II-2. OECD 국가들의 니트 청년(15~29) 비율 비교(2017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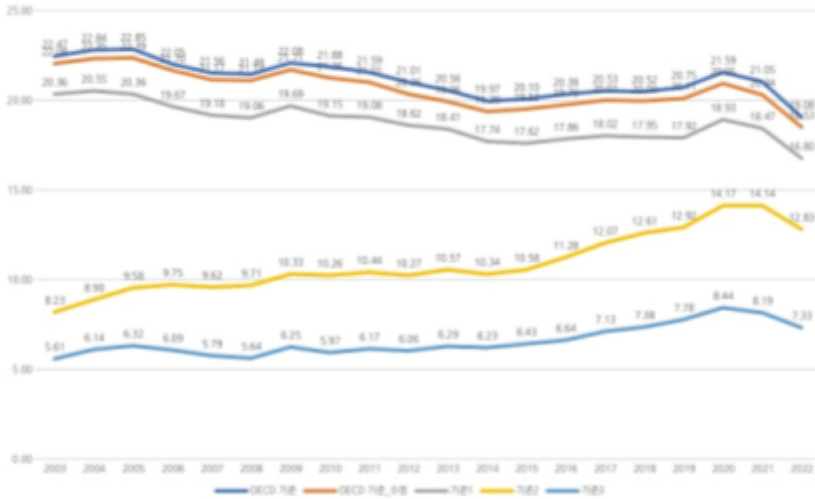


*출처: OECD(2019). Investing in Youth: Korea.

그림 II-3. OECD 국가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 비교

OECD에서는 Investing in Youth 시리즈를 국가별로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Investing in Youth: Korea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학력별 니트 청년 비율이 국가별로 비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청년들의 니트 비율이 다른 교육수준의 청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별 니트 발생 비율뿐만 아니라 니트 발생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 니트 대응 전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니트 청년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그림 II-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트 청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OECD 기준의 광의의 정의부터 쉬웠음으로 응답한 협의의 정의까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결과를 보면, OECD 기준의 니트 규모는 2003년 이래로 감소하다 코로나19 시기 증가하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제한적인 형태의 니트 기준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줄어들지만 추세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쉬웠음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기준들은 2003년에는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출처: 유민상 외(2022).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11-4. 한국형 니트 규모의 추정(15~34세, 2003~202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 '쉬었음'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다른 연령대의 '쉬었음'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청년들의 '쉬었음'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8월 현재 15-29세 '쉬었음' 청년 수는 40만 8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율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발간예정).

쉬었음 청년의 증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자발적 니트 등 청년층의 인식변화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어 구직의욕이 저하되는 악순환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니트의 규모, 니트의 다양한 유형과 그 비율들을 산출하고, 각 집단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2. 연령별 고용율 추이

	'22. 8월	'23. 5월	6월	7월	8월
고용률(%)	62.8	63.5	63.5	63.2	63.1
· 15~64세(OECD비교기준)	68.9	69.9	69.9	69.6	69.6
· 15~29세(청년층)	47.3	47.6	47.0	47.0	47.0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80.7	35.1	33.3	21.1	26.8
· 15~64세(OECD비교기준)	52.4	7.6	10.1	-0.1	6.4
· 15~29세(청년층)	8.1	-9.9	-11.7	-13.8	-10.3
인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16.6	13.4	13.5	14.2	14.4
· 15~64세(OECD비교기준)	-28.0	-27.5	-26.9	-27.1	-27.7
· 15~29세(청년층)	-21.1	-17.9	-17.2	-17.0	-17.2

*출처: 통계청(2023.9.13.). 2023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표 II-3.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추이 및 구성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2. 8			2023. 7			2023. 8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2,239	100.0	-166	2,268	100.0	116	2,322	100.0	83	3.7
15~29세	382	17.0	-64	402	17.7	40	404	17.4	23	5.9
15~19세	26	1.2	0	27	1.2	5	20	0.9	-6	-22.8
20~29세	356	15.9	-63	375	16.5	36	384	16.5	28	8.0
30~39세	254	11.3	-64	261	11.5	18	292	12.6	38	15.1
40~49세	270	12.1	8	255	11.2	-5	272	11.7	2	0.8
50~59세	383	17.1	-36	363	16.0	-12	387	16.7	4	1.1
60세 이상	951	42.5	-9	988	43.5	75	967	41.6	16	1.7

*출처: 통계청(2023.9.13.). 2023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4. 시사점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공표중인 니트 통계가 없어 세부적인 니트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광의의 니트는 청년 5명 중 1명, 협의의 니트는 청년 15명 중 한 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니트 청년 지원 서비스의 적용범위(coverage)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니트 청년 발굴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니트 청년들의 청년 정책 잠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니트 청년의 협소한 범위인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으로 예상되나, 이 상태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특히 각 제도들은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연령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소득기준, 장학금 같은 소득과 자산기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은 실업기간 기준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총량 제한과 선별 기준은 잠재 수요가 있는 청년들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과 발굴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니트 청년들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는 개별화와 유형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단일한 서비스만으로는 각기 다른 배경의 니트 청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One size doesn't fit all). 또한 유형별로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각 상황에 맞는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유형별 차등적인 서비스로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경직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니트의 원인, 기간, 상황에 따라 같은 니트 청년이라 할지라도 훈련 중심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청년들과 건강 중심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청년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니트 청년들의 유형을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장 니트 청년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1. 개요: 달기 어려운 대상에게 달기
- 2. 위기 청년 발굴에 관한 국내외 사례 검토
- 3. 시사점

3

니트 청년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³⁾

1. 개요: 달기 어려운 대상에게 달기

이 장의 목적은 니트 청년 발굴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의 핵심은 숨은 니트(hidden NEET)를 찾는 것이다. 숨어 있는 니트를 찾아 고용복지서비스에 연계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 자립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숨은 니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니트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Santos-Brien, Ruth, 2018).

우리나라는 아직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이 시작단계로 아직 니트 청년 발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하나는 신청주의 방식이 가진 한계이다. 신청주의 방식의 참여자 모집은 숨어 있는 위험군을 발굴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신청하는 대상자들을 위주로 서비스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이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운영기관들의 크림 스킴(cream skimming) 경향이다. 대인 서비스 기관들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까다롭고,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대상보다는 서비스 제공이 쉽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변화가 쉬운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대상자 선별은 운영기관에는 이익이 되지만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의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청주의 한계와 크림 스킴 위험은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의 정책 목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Finn, 2010; Maguire, S. 2015).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은 발굴에 더 힘써야 하며, 사업 운영의

3)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작성하였다.

인센티브가 취약 대상의 발굴과 변화에 더 큰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내 사례(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입법 사례, 교육부 중앙취업 지원센터 사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발굴 사례)와 해외의 닛트 청년 발굴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위기 청년 발굴에 관한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학교밖 청소년 정보 연계 입법 사례

20대 국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업 중단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발의되었다. 2013년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2014년 남인순 의원,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이어졌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들을 함께 검토 해 본회의를 거쳐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15년 5월에 시행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

법률 제정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연계는 학교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로 인해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함에도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 중 일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제공 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2021년 9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본인 동의 없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보 제공에 대한 보완 장치로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보 제공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이 대책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두 번째 추진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학교와의 연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기관 간의 연계와 찾아가는 서비스인 아웃리치(outreach)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오프라인 아웃리치로 이동버스를 이용한 거리상담과 온라인 아웃리치로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문자 상담을 통한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9).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졌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 대책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까지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청소년에 대한 연계와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정보망을 연결해 신속한 정보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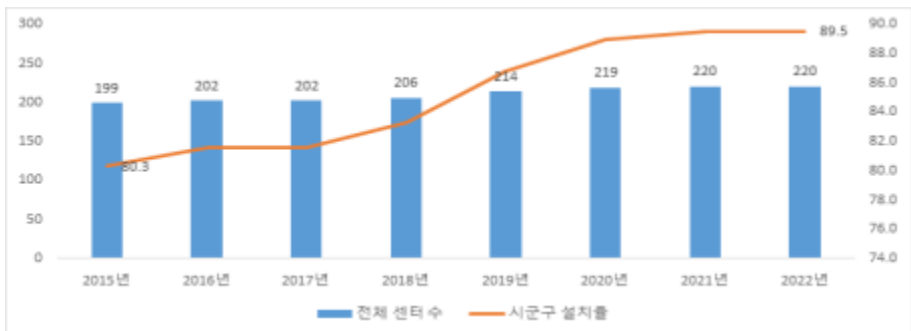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청소년정책위원회.

그림 Ⅲ-1.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꿈드림 센터는 2015년부터 설치되어 시도에 16개, 시군구에 204개 등 총 22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추이를 보면, 꿈드림센터는 199개소에서 220개소로 21개소가 증가하였고 시군구 설치율은 같은 기간 80.3%에서 89.5%로 증가하였다. 전담인력은 시도센터의 경우 6명 이상이, 시군구 센터는 2명에서 4명이 배치되어 독립적인 시설로 운영되기 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23: 220).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인원은 2021년 현재 32,267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1,622명으로 감소한 소폭 증가하였다. 2017년 연계인원은 64,459명에서 2018년 70,68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47,358명으로 감소한 후 3만 여 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에 성공한 인원은 2021년 현재 41.4%로 2016년(29.1%) 대비 11.3%p 증가하였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 6,752명에서 11,366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경우는 2016년 379명에서 2021년 2,16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관계부처 합동, 20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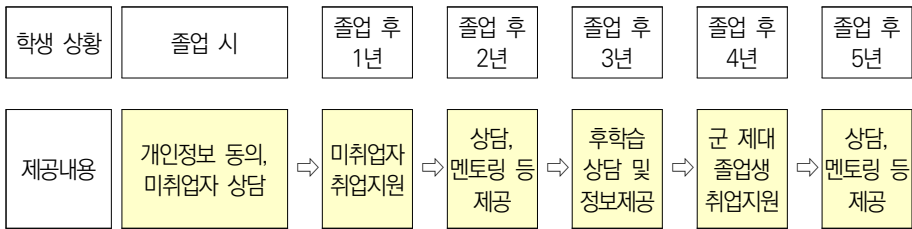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23: 220), 202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20년 이전 자료는 정은진 외(2021), 졸업생 정보 활용을 통한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그림 Ⅲ-2. 꿈드림센터 구축 현황(2015-2022)

학교 밖 청소년은 2021년 기준 학령기 559만 명 중에서 2.6%인 14만 6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꿈드림센터로 연계되는 인원은 22.1% 수준으로 80% 가까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6-17세 주민등록 인구 중 학생과 해외 순 출국 인원을 제외해 추정(하형석, 2020)하고 있으며 2021년 14만 6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꿈드림 센터로 연계된 인원이 32,267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22.1%로 추정된다. 2015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연계 비율은 14.4%로 2018년 28.0%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연계 비율 역시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 정보 연계에 대한 법 개정의 효과는 관련 통계가 제시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직업계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사례

2020년 교육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거점 직업계고를 선정해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에게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점 학교에서는 교당 1억을 기본 3년간 지원 받았으며 추가 2년은 연차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점학교는 서울·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경상권(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전라권(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3개 권역에서 권역별 6개 내외의 학교가 참여 중이다(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 출처: 한국장학재단(2020). 직업계고 계속지원사업 안내.

그림 III-3.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 실행과정(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위탁사업으로 이 사업과 함께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미취업 졸업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현재 각 거점학교에서는 주변 학교와의 협력으로 졸업생 중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진로설계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좀 더 높은 연계 방식으로 현재 거점학교에서 구축한 후속관리시스템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고용보험 DB 정보를 개인 동의하에 연결해 지원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총괄기관과 중앙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과 후속관리사업 거점학교 간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 사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 취업지원센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고졸취업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의 고졸취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센터는 2011년부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해 왔다. 2018년 이후 시도 취업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으며, 운영 예산은 5:5를 원칙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자체편성예산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은 산학협력 체제 구축과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관리 등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 현장실습 과정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현장실습 선도기업 접수에 많은 행정 부담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출처: 고졸만 잡(Job) 홈페이지(<https://portal.kosaf.go.kr/CO/jcAction.do>)

그림 III-4. 중앙취업지원센터 고졸만 잡 홈페이지

중앙취업지원센터는 2020년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 센터는 교육부에서 2019에 발표했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되었으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고 18억 원을 확보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이 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취업 연계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지원금 등 직접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사업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와 직업계고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발굴 사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취합, 보관,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최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 위험, 건강 위험, 주거 위험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혹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 대상자에게 접촉하여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흐름으로 설계되어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2.8.23). 수월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이력 없는 주거지 이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림 III-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과정 흐름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 개정하는 작업을 펼쳐왔고,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2022년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위기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사각지대 발굴을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에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여 활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8.23.; 보건복지부 2023.4.24.).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¹⁾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²⁾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취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재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기저귀 분유지원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진료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 출처: 보건복지부(2022.8.23),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림 III-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주요정보

보건복지부 신하 사회보장정보원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은 행정데이터를 연계한 대상자 특성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취합된 정보를 통한 발굴은 기존의 전달체계 및 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업무가 가중되어 제대로 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하여 항의를 하거나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뿐만 아니라 특정된 대상을 만나고, 설득하고, 서비스 연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결국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 역시 전통적인 아웃리치 활동과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5)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유럽국가 사례

유럽 국가들은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의 시행을 위해 청년 발굴 체계를 개편해 왔다. 각 국가들의 니트 청년 비율의 차이처럼 각 국가들의 청년보장제의 시행 수준과 역량에는 편차가 있어 이러한 경험을 종합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Who?	What?	How?	Who intervenes?
Young people in education and training	Prevention	Systematic guidance pro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s and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guidance providers, psychologists • Public Employment Services, Youth agencies: advisors/ mentors • Municipalities • Other specialised staff from health and social work services
NEETs	<p>Early warning systems</p> <p>Outreach</p>	<p>Tutoring/ mentoring of pupils at risk</p> <p>Oth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p> <p>Tracking measures</p> <p>One-stop-shop centres</p> <p>Outreach activities for hard to reach groups</p>	
	Early activation	<p>Orientation and guidance</p> <p>Skills audits</p> <p>Individual action plans</p>	

*출처: Santos-Brien, Ruth (2018). Effective outreach to NEETs Experience from the groun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그림 III-7. 유럽 청년보장제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방향

Santos-Brien, Ruth (2018)가 정리한 유럽 청년보장제의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방향을 살펴보면 매우 초기에서부터 니트 청년에 대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학교와 훈련기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니트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조기 경보(early warning system), 니트화 된 청년들에 대한 아웃리치와 서비스 연계, 그리고 조기 활성화 등에 대해 체계적인 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들의 니트 청년 발굴 방식은 표준화되기보다는 개별화되어 있다. Tosun, J., & Shore, J. (2017)는 각 국가들의 아웃리치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전체 국가나 지역이 모두 동시에 시행하는 아웃리치 방안은 하나도 없었고, 나열된 모든 아웃리치 방식을 수행하는 국가도 독일이 유일했다. 예를 들어, 학교를 통한 조기 개입, NGO와의 협력, 아웃리치 활동가의 지정, 새로운 유입 경로, 원스탑 서비스(single-point services), 인식개선 이벤트, 이탈자(학업중단자) 사후관리 등 다양한 방식이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활용되고 있었다.

	Proactive work with schools (1)	Cooperation with NGOs (2)	Designated outreach workers (3)	New points of entry (4)	Single-point services (5)	Mobile services (6)	Awareness raising events (7)	Follow-up with drop-outs (8)	Total
AT									0
BE Flanders									4
BE Wallonia									0
BE Brussels									7
BG									7
CY									1
CZ									3
DE									8
DK									1
EE									4
EL									6
FI									7
FR									5
HR									4
HU									3
IE									0
IT									6
LT									0
LU									6
LV									0
MT									5
NL									5
PL									4
PT									1
RO									2
SE									5
SI									3
SK									0
UK									6
Total	18	19	11	15	11	9	16	4	

*출처: Tosun, J., & Shore, J. (2017). The scope of European NEET outreach measures. Policy Brief V of the CUPESSE Project.

그림 III-8. 유럽 청년보장제의 시행 국가들의 아웃리치(outreach) 수행 범위

3. 시사점

이 장에서는 발굴과 관련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 행정데이터(공공빅데이터)를 통한 연계(사회보장정보원), 학업중단자 정보를 통한 연계(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는 졸업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미취업자들에 대한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데이터를 통한 연계는 명단 속 대상자들에게 접촉하고, 면담하고, 설득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통한 연계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연계시키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를 통한 연계와 전통적 아웃리치를 통한 연계는 앞으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 아웃리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별도의 아웃리치 인력을 지정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달체계를 원스탑 서비스 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니트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참고할만하다. 아웃리치의 체계화, 다양화,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는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 제4장 니트 청년의 발굴 현황은 어떠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 1. 개요
-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실태
- 3. 니트 청년 및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
- 4. 시사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4

니트 청년의 발굴 현황은 어떠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4)

1. 개요

이 장에서는 니트 청년 발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3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니트 청년 발굴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 지원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니트 청년을 유인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가 지자체 청년센터나 민간기관이다보니 지역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사업 참여자 발굴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청년센터와 온라인 청년정보 전달체계가 잘 구성된 대도시지역에 비해 도서지역의 니트 청년 발굴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같은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운영기관의 역량 및 의지에 따른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 발굴에 있어서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니트 청년 발굴 체계의 적용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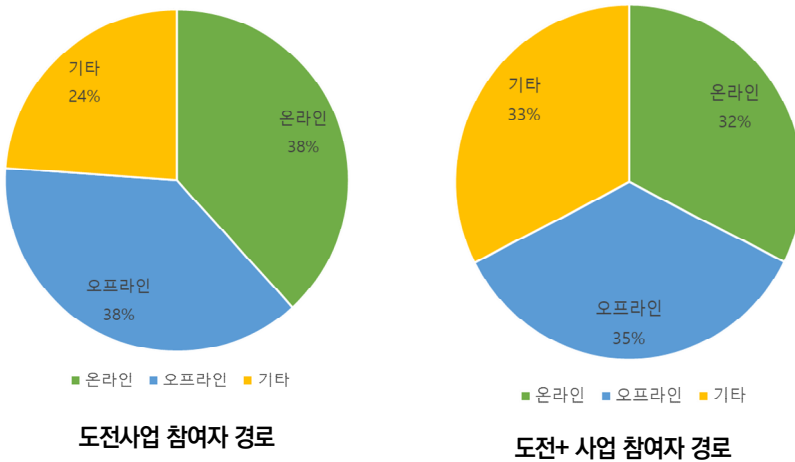
여기서는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한다. 첫째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유입경로를 살펴보고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는 니트 청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청년 당사자)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발굴 체계의 한계 및 개선점(기관 차원의 개선점과 중앙차원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4)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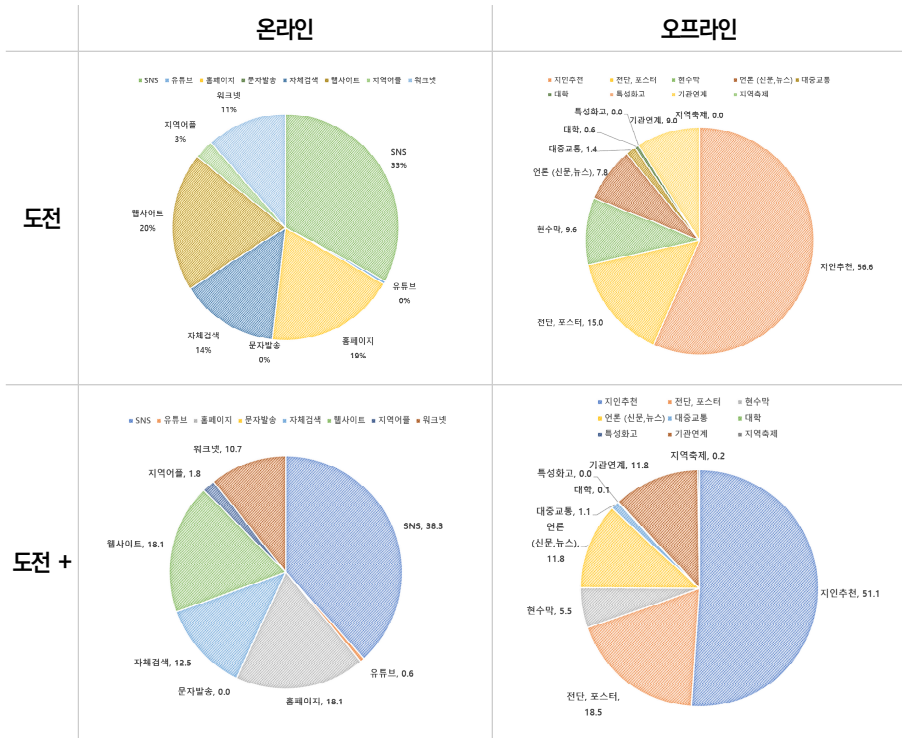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를 2022년과 2023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인한 정보파악이 용이하지만, 니트 청년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되어 오프라인의 중요성 또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개월 프로그램인 도전 프로그램과 5개월 프로그램인 도전+ 사업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2023년 상반기 자료)

그림 IV-1.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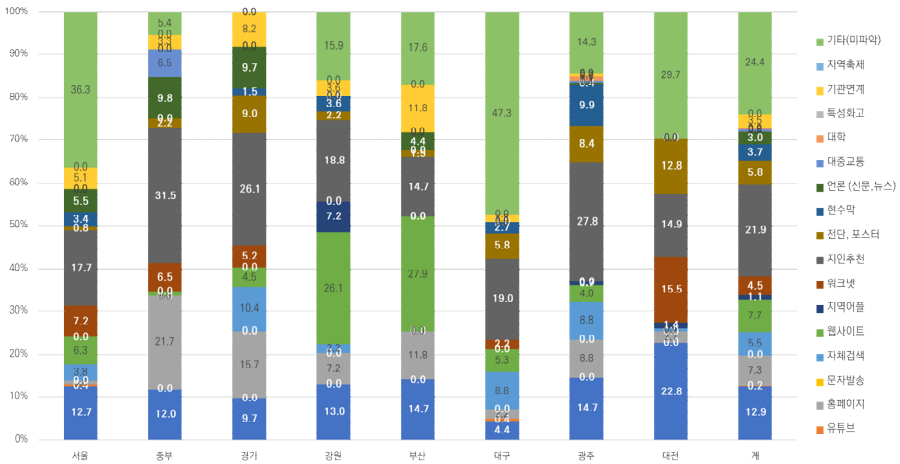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2023년 상반기 자료)

그림 IV-2.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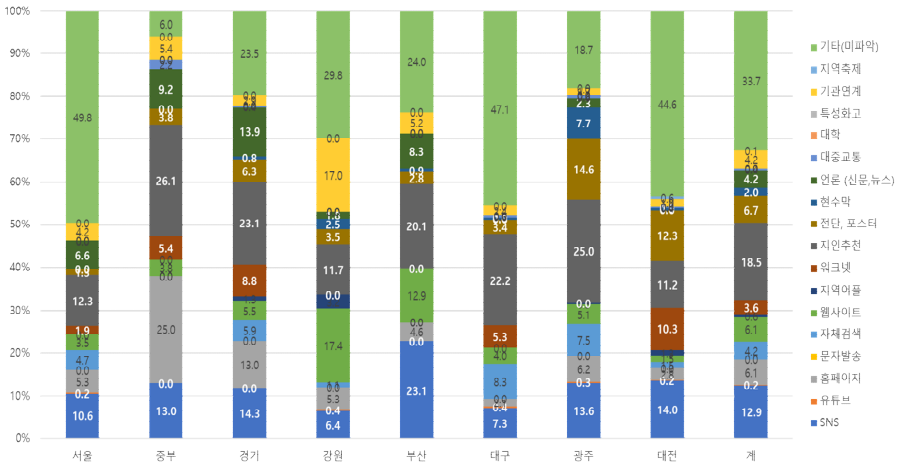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에서는 소셜 미디어(SNS),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유입, 오프라인에서는 지인추천, 전단/포스터를 통한 유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인추천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낯선 서비스의 유입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추천 혹은 비슷한 상황의 청년으로부터의 추천 등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래 추천은 해외의 또래를 통한 발굴 체계화(peer-to-peer outreach) 등을 참고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Santos-Brien, 2018).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참여자 발굴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년 당사자들이 다른 참여자를 발굴 할 수 있는 청년 아웃리치 활동가(peer outreach worker)의 양성, 온라인 광고 및 후기 포스팅, 지역사회 현수막 및 전단 배포 등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2023년 상반기 자료)

그림 IV-3.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도전)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2023년 상반기 자료)

그림 IV-4.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도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들의 참여자 발굴은 지역 간-운영 기관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굴 방법의 적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역 간/운영기관 간 발굴 역량의 차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연계수준 차이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청년정책 발전 수준에 따른 정보전달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간, 운영 기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니트 청년 및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⁵⁾

1) 면담개요

여기서는 니트 청년 및 실무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니트 청년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서비스 제공과 사후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니트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과 체계를 모색하여 취약청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접조사를 통해 그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IV-1. 면담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수	• 총 13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청년 당사자 면담 (9명, 1회) • 현장 전문가 면담 (4인, 1회)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방식(FGI, IDI)
면담 시간 및 횟수	• 개별면접 1인당 90분 내외, 1회 • 초점집단면접 1그룹 당 90분씩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자
참여자 모집 방법	• 눈덩이 표집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연구윤리	•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음 (202307-HR-수시-001)

5) 연구에 참여해 주신 청년분들과 현장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니트 청년 당사자의 니트 상태 경험과 발굴 과정 및 욕구, 그리고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기관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 제안 등을 조사하였다. 청년 당사자에 대한 질문 프레임은 니트 상태의 경험, 당시의 서비스 욕구, 발굴 과정, 정책 개선 방안 등이며, 현장 전문가의 질문 프레임은 현장에서 니트 청년 발굴 경험, 니트 상태에 따른 청년들의 욕구와 서비스 경험, 정책 제안 등이다.

표 IV-2. 청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니트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상태의 경험 • 니트 상태의 과정 (하향 경험, 상향 경험)
니트 상태에서의 서비스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상태에서의 자발적, 비자발적 욕구 • 니트 상태에서의 고립·은둔 경험과 서비스 연결 욕구
니트 상태에서의 발굴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상태에서의 서비스 연결 과정 • 니트 상태에서의 서비스 연결 욕구 • 니트 상태에서의 정보 제공, 인테이크 방안 (온/오프라인)
니트 청년들의 정책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 제공 방안 • 니트 청년들이 원하는 아웃리치 방안 (정보/서비스 연결) • 니트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방안

현장 전문가에 질문 프레임은 현장에서 니트 청년 발굴 경험, 니트 상태에 따른 청년들의 욕구와 서비스 경험, 정책 제안 등이다.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니트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V-3.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니트 청년 발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청년 발굴 경험 • 니트 청년 인테이크 경험 • 니트 청년 서비스 제공 및 사후 모니터링 경험
니트 상태에 따른 청년들의 욕구와 서비스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청년의 상태와 유형화 • 니트 청년들의 회복력 특성 • 니트 청년들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욕구 및 기타 욕구
니트 청년 지원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 청년 지원 정책 제안 •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제도적 변화 제안 • 니트 청년 정보 연계 후 효과적인 아웃리치 방안

2) 참여자 인터뷰 결과

이 보고서는 참여자 인터뷰 결과를 발굴 방안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면접당시 청년들의 니트 이전의 경험과 사업참여 경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경험을 청취하였으나, 본 보고서가 정책보고서인 특성상 청년과 실무자들이 제안한 발굴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인터뷰 결과 역시 면접에서 도출된 방안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1)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입방안 마련

청년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연히'라고 응답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광고를 발견하거나, 우연히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았거나, 우연히 홍보 문자를 받았거나 하는 식이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자신의 생활이 온라인과 친숙하지만 온라인만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청년들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특히 오랜 시험 준비로 장기 니트 상태에 있었던 청년은 자신과 같은 청년은 동네의 편의점이나 식료품점 등에서의 홍보, 현수막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확실히 그런 마트 같은 데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시험공부하면서 밖에 거의 안 나갔거든요. 근데 마트 갈 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전단지나 현수막을 다른 데다가 붙이면 저는 아예 못 봤을 것 같아요. 원룸촌 마트 같은 데 그런 데 붙이면은 뭐 사러 가면서 한번은 보지 않을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A)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전 청년수당 참여 경험도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두 청년은 청년수당을 통해 연결된 서울시의 정보망을 통해 안내를 받았으나 다른 한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였다. 대신 서울시의 청년포털을 통해 광고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여 홍보에 노출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저는 오랑*을 이용해 본 적 없고 서울시 블로그 구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 메인에 띄워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구독한 거를 통해서 알게 됐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B)
*오랑은 2023년 현재 서울시 청년센터의 브랜드명을 의미함

이는 종합적으로 청년들에게 온라인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청년의 선호와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다차원적 접근

청년들이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선호체계에 서비스가 부합해야 한다. 어떤 청년들은 스스로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단순히 참여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청년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또한 이야기하였다. 발굴된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발굴뿐만 아니라 발굴 후의 서비스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탐방 같은 걸 하더라도 서울은 갈 수 있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에 있는 산업군 자체가 진짜 막 애들끼리 장난으로 말하는 건 자영업자 공무원 끝이다 농사 이렇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다양화하고 어떻게 다각화하고 어떻게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방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C)

지역에서 생활해온 청년들을 통해서도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과 지원금이 아닌 외부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작은 지역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서비스 참여가 망설여질 것이란 의견이었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청년의 수가 적어서, 지역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 소문이 빨리 퍼질 것이 우려되어서 서비스 참여가

망설여진다는 의견이었다. 청년들의 선호는 서비스 품질,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익명성과 자율성에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고향에서 참여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막 길 지나가다 보면 동창들도 만나고 그러가지고 만약에 고향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부모님끼리도 다 잘 알고 그러가지고 아무래도 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C)

③ 청년 맞춤형 발굴 방안 (또래 아웃리치 활용 등)

청년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시각에서 여러 발굴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또래를 추천하고, 온라인에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는 현재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동기를 높이고 또래 청년들의 유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포터즈 활동이 청년들의 경력으로 활용되고 일부 금전적 보상이 함께 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저만 제가 얘기 나눠보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혹시 알게 돼도 바로 신청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가끔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거 혹시 해본 사람 있냐 이런 글을 볼 때가 있는데 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봤었는데 그래서 혹시 서포터즈 이렇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조금 늘어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B)

다른 예로, 고립이 심화된 경우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온라인 생활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배달 업체나 택배 업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하고, 이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인정해주자는 의견이었다. 택배 박스에 QR 코드와 같이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 정보 연결이 취약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식료품점을 통한 홍보, 전단지/현수막을 통한 홍보 등에 대한 의견과 TV광고 및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저는 진짜 힘든 분들은 아예 집 밖을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 마트 같은 데 나오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배달 앱 같은 데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청년 보전 사업에 관한 글 읽고 얼마 할인받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아예 집에 있는 사람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진짜 완전 원시적인 전단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물량 공세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들 요즘 청년분들 중에는 핸드폰 안 하시는 분들 없고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앱 같은 거에다가 그 형식으로 살짝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 D)

④ 청년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한 개선방안

신청주의를 통해 유입된 청년들은 자발적 서비스 참여의 이점이 있어 참여동기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 청년은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 방식은 결국 콜센터의 아웃바운드(외부로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청년들의 신뢰가 낮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청년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방법은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또래들의 활동 경험 및 추천 의견을 노출 시켜 스스로 유입되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안내하고 참여시키는 방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입시키는 방식이 청년 사업에 더 적합한 방식일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있는 이 인원들 중에 이제 고립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은둔 경험이 있는 애들을 찾게 되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더 빠르게 발굴할 수 있어요.” **(니트 상태 경험 청년 A)**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실무자들의 의견

여기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실무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청년면담과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제안한 발굴 방식을 초점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기관의 발굴 노하우와 발전 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중 시범사업부터 참여한 기관들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

부의 유관 사업참여 경험이 있어 참여자 발굴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퍼진 사업 참여기관으로서의 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굴이 더 용이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업참여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자의 역량이나 기관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연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는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3년차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기관 추천이나 기관 연계가 되게 좀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중략) 다른 곳도 그렇지만은 복지기관 단체가 자기 일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업무 협조나 연계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약간 배타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일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침상에 있었던 지역청년고용협의 회 강행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 차에는 두 번이었고, 2년 차 네 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핵심 실무자들 중심으로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연락 바로 해서 뭐 물어보고 바로 판 사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기관 연계기관 추천이 나뉘므로 좀 있다.” (운영기관 실무자 A)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관은 초기 발굴 방법 및 발굴 타이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 발굴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누군가 발굴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보다는 스스로 발굴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초기 참여 기관들에 대해 우수기관의 발굴 방법을 빠르게 전수해주고 역량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은 비교적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는 서울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과 기관 간 연계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청년정책 인프라는 개별 운영기관의 사업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서울 청년 포털이라는 이 정책이 집적되는 홈페이지가 너무 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 올렸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조금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모두에게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운영기관 실무자 B)

② 발굴 청년들의 특성 및 또래 추천 경험

실무자들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5개월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실무자들과 청년들 간의 라포가 형성되고, 안정적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이들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또래를 추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래 추천은 결국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기인하므로 현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수자들이 사업을 추천하여 지속적으로 니트 청년의 발굴 및 유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발굴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발굴을 직접적으로 찾아 나서서 1년 차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도 같이 나가가지고 대학이나 많이 다니면서 저희 실무자들도 다 나가서 발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입소문들을 좀 타고 지인 추천 이제 지금은 지인 추천 참여자 추천들 기준에 있었던 그런 입소문들이 좀 많이 소문이 나서 저희들은 올하는 좀 발굴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 다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운영기관 실무자 C)

“지인 추천이 상당히 또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 2년 차 오픈 채팅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5개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운영기관 실무자 A)

③ 지역네트워크 연계 및 파트너십을 통한 발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실무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관 네트워크 체계, 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네트워크

체계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기관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관련 기관 리스트가 지역별로 취합되어 공유된다면 연계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이는 운영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를 교육하고, 연락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모집이나 일 경험이나 이런 쪽을 전국의 단위별로 다 사회적 경제협의회나 사회적 기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략) 아까 중앙 단위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리스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좀 하였으면 좋겠고 거기와 연계해서 지역별로 유관기관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기관 실무자 A)

④ 아웃리치 가능성 및 개선 의견

마지막으로 운영기관이 아웃리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기존에 아웃리치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아웃리치 서비스 활용에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서비스 추가 제공 여력이 없는 기관은 아웃리치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이는 운영기관의 실무 담당인원이 적고,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저희가 아웃리치를 그때 진행하는 것 그게 이제 좀 처음부터 아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께 좀 문턱을 한번 낮춘 채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진행은 해보고 싶지만 참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는 한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와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 기관 입장에서는... 참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너무나 커서 자신 있게 주도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운영기관 실무자 B)

“저희에게 직접 찾아온 청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마음을 열고 뭔가 상담을 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 위해 조금의 마음을 열고 참여를 오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아웃 배치 해가지고 직접 연락을 하거나 저희가 발굴에 나섰을 때 이분들을 이렇게 쉽게 정말 뭔가의 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섰다가는 오히려 이 도전 사업이라는 게 좀 타격을 그분들이 되게 예민한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역으로 조금 좀 저희 쪽으로 뭔가 이렇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기관 실무자 B)

다만,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발굴의 확대가 필요하고 아웃리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아웃리치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웃리치 역량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 혹은 중앙팀의 운영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까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참여자 모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들의 발굴 관련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년도전지원사업 발굴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간, 운영기관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신규기관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도전지원사업 유입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한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 초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니트 청년에게만 닿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을 병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청년 정책 포털과 같은 정보망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방식의 전단지과 현수막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다양한 청년들이 사업으로 유입되어 정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또래 발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Peer Marketer, 불가리아의 Peer Mediator 등 청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을 홍보하고 아웃리치를 시행하여 다른 청년들을 사업으로 유입시키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와 같이 Youth Outreach Worker를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청년 대상 제도와 니트 비율이 우리와 같지 않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또래를 활용한 사업참여 독려가 당사자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넷째,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및 중앙부처에서도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여 연계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참여자 추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5장 니트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 1. 개요
- 2. 교육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 3. 고용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 4. 교육-고용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방안
- 5. 시사점: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니트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1. 개요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아웃리치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의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를 연계하여 니트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장의 내용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하나는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데이터에 한정되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데이터를 통해 규모를 추정했다고 하여 당장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규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니트 청년 당사자라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니트 청년을 특정해서 연락(컨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서비스 연계 체계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법제가 개선되었으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 밖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낯선 곳에서의 연락을 받고 바로 시행할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니트 청년들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함께 의사소통하고 서비스 체계로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데이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데이터로 고용보험DB와 유관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부의 소관 데이터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와 고등교육통계 데이터이다. 이 두 가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두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리하였다.

2. 교육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⁶⁾

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및 유지취업률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24호)로서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⁷⁾)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취업률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중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과 맞춤형 진로 지원 모델을 마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a).

(1) 조사개요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사대상 학교, 학과 정보와 학생 인적정보(인적정보 13자리, 학년, 반, 성별, 외국인학생 여부)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당해연도 1월과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가입자(근로복지공단), 입대자(병무청), 고등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등 총 27종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⁸⁾를 통해 졸업 후 현황(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한다(당해연도 4월 1일). 다음으로 당해연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1차 유지취업률(당해연도 10월 1일) 조사와 전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2차 유지취업률(당해연도 4월 1일)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내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NEIS 시스템 기반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하거나 유·초·중등기본통계조사와 연계하는 기본정보(학교정보, 학과정보, 학생정보)와 공공DB와 연계하는 졸업후 상황(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미취업자, 기타)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6) 이 절은 김나영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였다.

7) 일반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교

8) 공공DB가 중복으로 연계되는 경우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표 V-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구분		세부정보	비고 (연계기관)	
학교정보	학년도	조사대상 학년도	기본정보 (시·도교육청 제출 및 유·초·중등기본 통계조사 연계 ⁹⁾)	
	시도명	학교 소재 시도명		
	학교명	조사기준일 당시 학교명		
	소속교육청명	해당 학교가 속해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명		
	설립명	국립, 공립, 사립		
	남녀 구분	남, 여, 공학		
	주야 구분	주간, 야간, 주/야간		
학교 유형	특성화고, 마이스티고, 일반고 직업반			
학과정보	학과(전공명)	NEIS 시스템에 등록된 학과(전공)명		
학생정보	인적정보	인적정보 13자리		
	학년	학년		
	반	반		
	성별	남, 여		
	외국인 학생여부	내국인, 외국인		
취업자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입자 여부(Y/N),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장 소재지, 월 평균 보수액, 사업장 분류, 사업장 종사자규모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용 보험 가입자	가입자 여부(Y/N),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사업장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우편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설립일자, 피보험자 수, 사업장 분류, 소득금액, 직종코드, 주 소정 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근로복지공단
	해외취업자	취업 여부, 취업일, 취업처,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 국가명	한국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출입국사무소	
	농림어업 종사자	종사 여부,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진학자	진학 여부, 진학학교명, 진학학교 본분교명, 학제구분, 진학학교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 등	
입대자	입대자 여부, 입대일, 입대유형	병무청		
제외인정자	사망자	사망자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학생	외국인 여부		
	해외봉사단	해외봉사 여부, 파견국가,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봉사단 분류	외교부	
	장애인	장애인 여부, 자격취득일	보건복지부	
	수형자	수형자 여부	대한상공회의소	

구분		세부정보	비고 (연계기관)
	장기입원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진료 여부	대한상공회의소
기타	1인 창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유무, 특정 연소득금액 유무	국세청
	자영업자		
	프리랜서		
	자격증정보	취득여부, 자격취득일, 국가자격 종목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a) pp.7-8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3) 청년 니트 발굴 가능성과 한계점

① 가능성 탐색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청년층 니트 인구를 특성별(성별, 학교유형, 설립 유형, 전공계열, 학교 소재 지역)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조사는 공공 DB와의 연계를 통한 방식으로 해당 DB에 가입되지 않은(미등록) 경우, 실제 니트 대상이 아님에도 미취업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 체계에서는 취업의 사가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미등록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¹⁰⁾. 특히, 올해에 시범 연계를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DB를 본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들 중 진학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니트 청년층 발굴과 관련하여, 2차와 3차 유지취업조사가 본 조사 이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가입자, 신규보험 가입자, 유지취업자 정보를 수집하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본조사 후 18개월 이후까지 유지 미취업자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졸업 후 취업상황 조사는 6개월 주기이나, 진학자 및 입대자 파악은 1년을 주기로 하므로 조사 설계상 6개월 주기가 아닌 12개월 주기로 니트 청년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 학교명, 학과정보, 학생정보는 시도교육청(NEIS 시스템 기반)에서 제출하고, 학교 세부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기본통계조사에서 작성된 학교정보)등을 연계한다.

10) 2022년 기준, 취업자(22,709명) 중 99% 이상(22,603명)이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DB 미등록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계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이용한 발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직업계고 취업통계팀’에서 직업계고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 제 26조의 2, 3(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교육 관련 통계조사)」과 「초·중등교육법 제 11조 2(교육통계조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목적 이외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취업 청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졸업생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파악에는 제한점을 지닌다.

셋째, 장기 니트 발굴과 관련하여,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까지¹¹⁾의 취업상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그 이후 지속적인 취업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조사시점의 취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대상 풀(pool)을 확보하고, 워크넷,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의 고용서비스와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취업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청년 니트 규모 추정

① 니트 청년 규모 추이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니트 청년 규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2020년 27.7%(24,938명)에서 2021년 28.6%(22,583명), 2022년 29.6%(22,709명)로 점차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 비율은 2020년 27.0%(24,290명)에서 2021년 23.1%(18,211명), 2022년 21.6%(16,550명)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1) 1차 유지취업조사는 본조사(졸업연도 4.1.기준) 후 6개월(당해연도 10.1) 경과 후, 2차 유지취업조사는 12개월 경과(차년도 4.1) 후, 3차 유지취업조사는 18개월 경과(차년도 10.1)후에 실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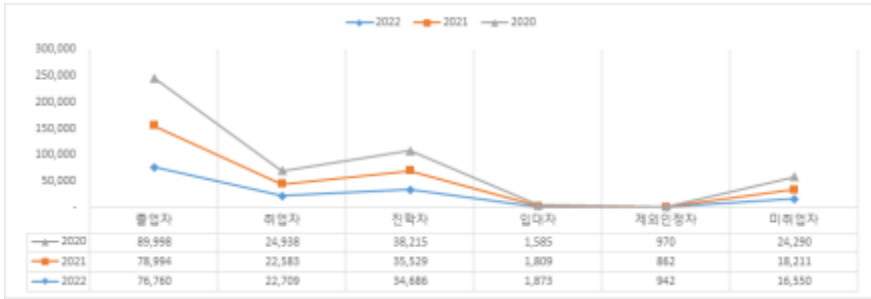


그림 V-1.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추이(2020~2022)(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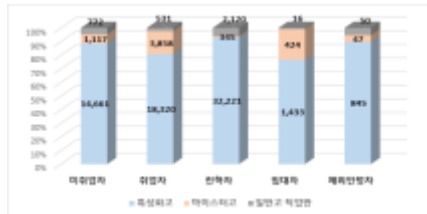
다만, 취업자 비율과 미취업자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직업계고 졸업생 중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여전히 니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특성별 니트 청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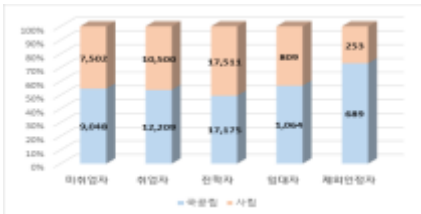
니트 청년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후 상황(미취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을 특성별(성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V-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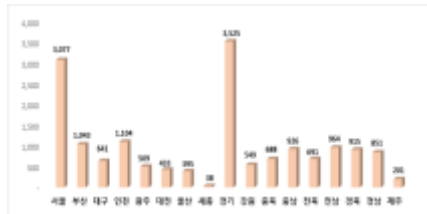
1) 성별에 따른 미취업자 규모



2) 학교유형별 미취업자 규모



3) 설립유형별 미취업자 규모



4) 지역별 미취업자 규모

* 주: 기준연도: 2022년

그림 V-2. 성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첫째, 성별에 따른 미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으로, 남성 졸업자(44,583명) 중 미취업자는 22.9%(10,213명), 여성 졸업자(32,177명) 중 미취업자는 22.9%(6,337명)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미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미취업자(16,550명) 중 남성이 61.6%, 여성이 38.3%로 남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더 높은 직업계고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¹²⁾.

둘째, 학교유형별로 미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졸업자(67,480명) 중 미취업자는 21.7%(14,661명),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자(5,791명) 중 19.3%(1,117명), 일반고 직업반 졸업자(3,489명) 중 22.1%(77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미취업자(16,550명)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는 8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6.7%, 일반고 직업반 4.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설립유형별로 미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졸업자(40,185명) 중 미취업자 22.5%(9,048명), 사립학교 졸업자(36,575명) 중 20.5%(7,502명)로 나타났다. 전체 미취업자(16,550명) 중 학교 설립유형별 비중은 국·공립학교 54.7%와 사립학교 45.3%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이스터고가 포함된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립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진학률로 인해 사립학교의 미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학교소재 지역별로 미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별 미취업자는 2022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졸업자 21.3%(3,525명), 서울지역 졸업자 18.6%(3,07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세종 0.2%(38명), 제주 1.2%(201명), 울산 2.4%(395명), 대전 지역 2.6%(433명) 졸업자 순으로 졸업 후 니트 상태에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 지역 졸업생 46.6%(7,706명)과 비수도권 졸업생 53.4%(8,844명)로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미취업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광역시와 비광역시 시로 구분할 경우, 서울 및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이 43.5%(7,202명)와 비광역시 소재 졸업생이 56.5%(9,348명)로 비광역시 지역 직업계고 졸업자의 미취업 비중이 약

12) 실제로 성별간 졸업자 비율은 남성이 58.1%(44,583명), 여성이 41.9%(32,177명)로 약 16%p 정도 남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p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전공별 니트 청년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V-3]과 같다. 조사결과, 직업계고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공학, 제조 및 건설’ 25.7%(4,259명), ‘경영, 행정 및 법’ 25.7%, (4,259명), ‘서비스’ 12.9%(2,13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0.1%(9명),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0.1%(11명), ‘보건 및 복지’ 1.5%(252명) 순으로 미취업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전공에 따른 직업계고 졸업생 수 비중이 니트 청년 규모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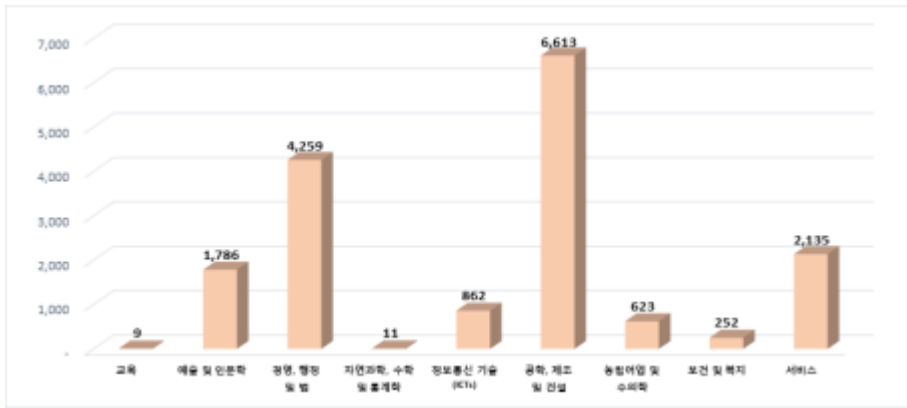


그림 V-3. 전공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③ 장기 니트 청년 규모 파악

장기 니트 청년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V-2>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89,998명) 중 미취업자는 24,290명(27%)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니트 상태인 청년은 전체 졸업자의 22.5%(20,211명)를 차지하였으며, 12개월 이후에는 13.4%(12,047명)로 약 9%p 정도 감소하였고, 18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니트 상태인 청년은 9.9%(8,882명)로 나타났다. 즉, 직업계고 졸업 후 1년 6개월 동안 장기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 규모가 전체 졸업생의 약 10% 정도를 차지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2. 직업계고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규모

조사차수	미취업자	유지 미취업자	미취업 이탈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본조사	24,290	-	-	-	-	-
1차 유지 (6개월)	-	20,211	4,079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2차 유지 (12개월)	-	12,047	2,360	2,044	3,760	미조사
3차 유지 (18개월)	-	8,882	1,606	미조사	1,559	미조사

* 주: 기준연도는 2020년(졸업생 수: 89,998명)이며, 진학자와 입대자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됨.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해당연도 2월(전기) 또는 전년도 8월(후기) 졸업자가 있는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¹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진로 설계 및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년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진로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사 목적으로 삼고 있다.

(1) 조사개요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사이버 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제외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2월과 전년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기준일(매년 12월 31일) 당시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당연도 고등교육기관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3, 6, 9, 11개월)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유지취업 현황을 조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3b).

13) 해당연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 정보(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국내대학 진학자/국외대학원 진학자/입대자/교내취업자/기타)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조사내용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후 상황을 기준으로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취업 불가능자’, ‘기타/미상’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표 V-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구분		정의
취업자	교외 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교내 취업자
	교내 취업자 TLO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관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은 자
	해외 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1인 창(사)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세청 DB 연계: 해당 연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85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⁴⁾ -중소벤처기업부 DB연계: 해당 연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
	프리랜서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세청 DB 연계: 해당 연도 원천징수 사업 소득액이 총 5,743,320원 이상인 자 ⁵⁾
진학자	국내진학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국외 진학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입대자		조사 기준일 당시 군 입대자

구분	정의
제외 인정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 제외하는 자 ¹⁶⁾
취업 불가능자	조사 기준일 당시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기타	조사 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 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미상	조사 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후 상황조사 지침. 고등취업통계팀 내부자료.. pp.14-34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3) 청년 니트 발굴 가능성과 한계점

① 가능성 탐색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졸업자 대상자 중 ‘기타/미상’으로 분류된 학생 정보를 활용한다면 청년층 니트 인구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자료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특정시점(졸업연도 12월 31일)에서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3개월 간격(3월, 6월, 9월, 11월)으로 제공하므로 현재 취업상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졸업 후 상황이 ‘기타/미상’으로 분류된 청년 중에는 조사기준일 당시 미취업 또는 취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취업은 했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에 미흡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사기준일 당시 ‘기타/미상자’로 분류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차년도 11월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청년 니트로 해석하였다.

② 한계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를 이용하여 니트 청년을 발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는 매년 12월 31일에 해당연도 2월과 전년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 다음 해 11월까지 건강보험(직장)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이다.

14) 학생창업기업 월평균 매출액(1,022,199원)*학생 창업활동기간(6.7개월)

15) 9,160원(2022년 최저임금*209시간*3개월)

16) 의료급여수급자, 여자 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WFK 사업(예: KOICA 봉사단, NGO 봉사단) 참여자

이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조사」와 같이 개인 단위로 졸업 후 취업상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11개월 경과 이후 유지 미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장기간 대상자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취업통계팀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한 다음해 11월까지의 개인별 취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¹⁷⁾. 하지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목적 이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이나 정책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4) 청년 니트 규모 추정

① 니트 청년 규모 추이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니트 청년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표 V-4>와 같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기타/미상자'를 분류한 후 건강보험 가입 이력 정보를 대조하여 졸업한 해 3월, 6월, 9월, 11월 중 건강보험가입이력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2017년 574,009명에서 2021년 549,29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니트 비율은 2017년 17.6%(100,862명)에서 2019년 17.0%, 2021년 15.2%(83,475명)로 근소하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V-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청년 니트 규모 추이

연도	졸업자	기타미상자	청년 니트	졸업자 대비 니트 비율(%)
2017	574,009	172,151	100,862	17.6
2018	555,808	158,553	94,483	17.0
2019	555,808	158,561	93,568	17.0
2020	553,521	167,719	92,051	16.6
2021	549,295	152,657	83,475	15.2

* 주: 조사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임.

17) 학생 ID (졸업자)기준으로 취업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보도자료 발표 후 학생 단위 정보는 삭제한다.

② 특성별 니트 청년 규모

니트 청년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성별, 지역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중 니트 청년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V-4)와 [그림 V-5] 참조).

우선, 성별에 따른 미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졸업자(269,726명) 중 미취업자 비율은 14.2%(38,331명), 여성 졸업자(279,569명) 중 미취업자 비율은 16.1%(45,144명)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간 미취업자 비율은 전체 미취업자(83,475명)중 남성이 45.4%, 여성이 54.6%로 나타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소재 지역별로 미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별 미취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교 졸업자가 20.7%(17,289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기 16.7%(13,966명), 부산 9.5%(7,951명)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 0.8%(644명), 제주 0.9%(781명), 울산 1.2%(1,005명) 지역 졸업자 순으로 졸업 후 니트 상태에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대 졸업생 39.8%(33,228명), 비수도권 졸업생 60.2%(50,247명)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자의 미취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광역시와 비광역시로 구분할 경우, 서울 및 광역시 지역 대학 졸업생 48.3%(40,293명)과 비광역시 지역 졸업생 51.7%(43,182명)로 비광역시 지역 대학 졸업자의 미취업 비중이 약간 높았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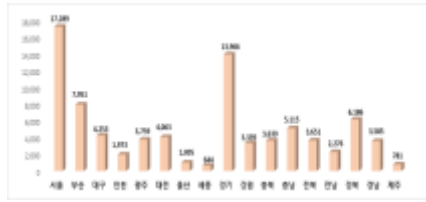
또한, 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전공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니트 청년 규모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예술 및 인문학’ (19.2%, 16,013명), ‘공학, 제조 및 건설’ (18.9%, 15,809명), ‘경영, 행정 및 법’ (15.8%, 13,227명), ‘서비스’ (10.9%, 9,088명) 순으로 니트 청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5.0%, 4,196명), ‘정보통신 기술’(5.0%, 4,197명), ‘농림·어업 및 수의학’ 분야(1.7%, 1,382명)의 경우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공별 졸업자 수 비율¹⁹⁾을 고려할 때 ‘공학, 제조 및 건설’ 과 ‘보건 및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니트 청년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예술 및 인문학’ 과 ‘경영, 행정 및 법’ 분야는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18) 부산지역의 경우 졸업생 수 비율(8.2%)에 비해 미취업자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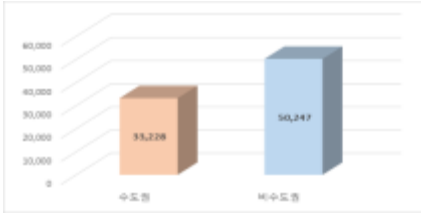
19) 전공별 졸업생 수는 ‘공학, 제조 및 건설’(22.5%, 123,600명), ‘보건 및 복지’(16.7%, 91,482명), ‘예술 및 인문학’ (15.1%, 83,044명), ‘경영, 행정 및 법’(13.2%, 72,423명) 분야 순으로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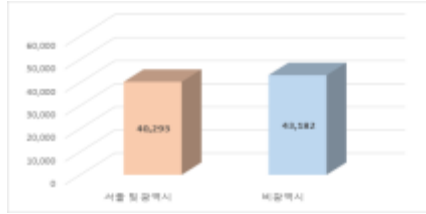
1) 성별에 따른 미취업자 규모



2) 지역별 미취업자 규모(17개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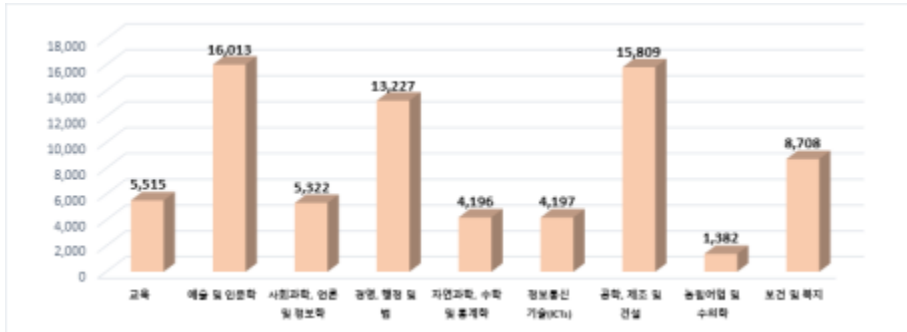
3) 지역별 미취업자 규모(수도권/비수도권)



4) 지역별 미취업자 규모(광역시/비광역시)

* 주: 조사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그림 V-4. 성별,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 주: 조사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그림 V-5. 전공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3. 고용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²⁰⁾

1)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개요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은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고용보험DB,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을 위한 워크넷DB,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DB, 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산재보험DB,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일모아DB 등 다양한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들은 사업장 정보와 개인 정보를 기본 관리정보로 연계된다. 고용보험DB와 산재보험DB는 사업주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정보와 피보험자 정보가 기록된다. 워크넷DB는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등록에 의해 정보가 기록된다.

고용보험은 원칙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삼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 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 이하인 건설공사는 적용이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사하지만 모든 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도 원칙상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대표이사, 목사·승려·신부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2012년 1월 이후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43천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워크넷 행정자료는 일반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와 고용센터 상담원 및 지자체 공무원이 이용하는 인트라넷 서비스로 구분된다. 개인 구직자는 온라인 구직신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 입사지원, 지역별·직종별·기업형태별 일자리정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인기업도 구인신청을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정보관리 등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워크넷DB 자발적인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정보제공을 통해 자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20) 이 절은 정재현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작성하였다.

2)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만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피보험자의 취득과 상실이 사업주 신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거주지역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현 거주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가 추가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청년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노동행정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데이터 및 교육행정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한계에도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층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DB 중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자료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은 직전 사업장에서 실업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상실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실업(구직)급여를 수급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로부터 이런 구직활동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는 일단 이들을 비구직 상태로 지칭할 것이다. NEET의 개념에 따라 구직 상태와 비구직 상태 모두 청년 NEET에 포함된다. 다만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층 중 비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를 1차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표 V-5. 고용노동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상태 구분

기초 자료	상태		관련 자료	구분
고용보험DB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DB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고용보험DB	취업
		피보험자격 취득		
		실업(구직)급여 수급	워크넷DB	구직
		워크넷 구직등록		
		직업훈련		
비구직자		비구직		

비구직자 식별을 위한 상태 구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상실일 이후 고용보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한다. 취득한 경우는 취업상태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확인 단계로 넘어간다. 취업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3개월이내 취득자, 6개월이내 취득자, 12개월이내 취득자, 24개월이내 취득자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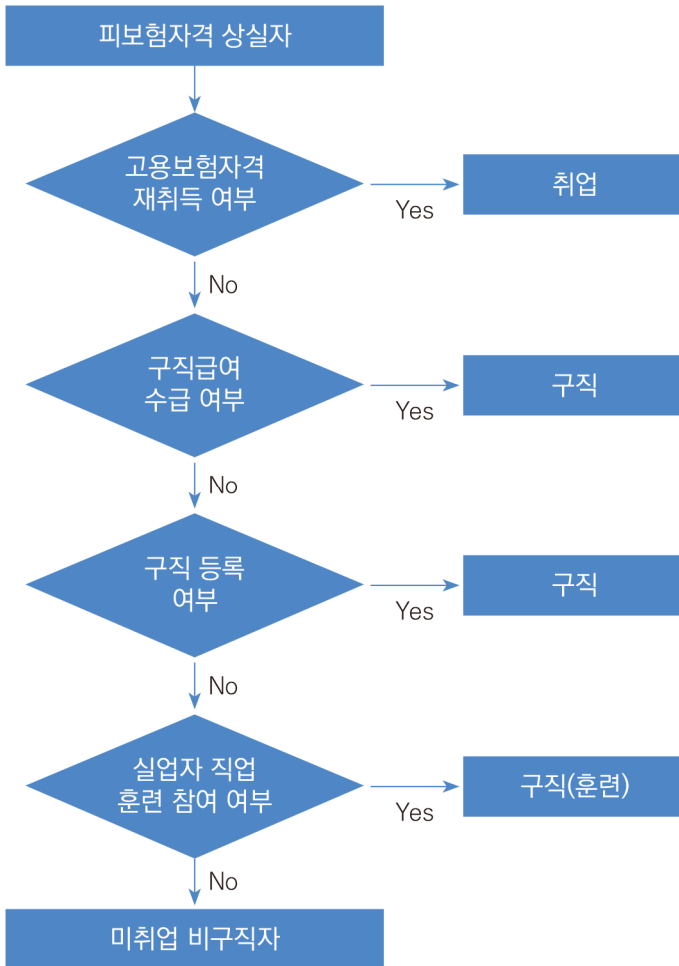


그림 V-6.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취업상태 확인에 이어 실업(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구직급여는 상실일 이후 1년 이내에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1년 이내 수급여부로 한정한다. 실업(구직)급여 수급은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구직상태로 분류한다. 실업(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이 역시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상태로 분류한다. 단, 이 단계에서 잡코리아 등과 같은 민간 구인구직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나 기업 공개채용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음 단계는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여부로 구직(훈련) 상태를 확인한다. 이 역시 1년 이내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구직자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한편, 비구직자 식별 구조에서 가장 우선한 상태는 취업이었다. 예를 들어 상실신고 이후 바로 구직등록을 해서 다시 3개월 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3개월 내 취업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실업(구직)급여 수급후 6개월 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취업실업(구직)급여 수급이 아닌 6개월 내 취업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상태 식별과 우선관계는 [그림 V-6]으로 표현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자료를 이용했으며 피보험자격 상실이후 상태식별을 고려하여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상실자DB를 기초자료로 삼았다. 대상 연령대는 청년기본법을 고려하여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설정하였다.

3) 청년층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분석

각 연도별 34세 이하 청년층 상실자 수는 2018년 2,158,792명에서 2019년 2,167,542명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105,86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127,359명으로 증가했다. 상실자 중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면 남성 25~29세 가 가장 비중이 높고 여성 25~29세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그 격차는 약 1%p로 남성과 여성 모두 25~29세 비중이 높았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여성 20~24세로 17% 안팎을 차지했고, 네 번째 비중은 14% 안팎을 차지한 남성 30~34세였다. 남성 25~24세는 12.7~13.9%를 차지했으며 여성 30~34세는 12% 안팎을 차지했다. 19세 이하의 남성은 3.3% 이하였고 여성은 2.9% 이하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지 않았다.

표 V-6. 성별·연령대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실자 수		2,158,792	2,167,542	2,105,860	2,127,359
남성	19세 이하	3.3	3.1	2.7	2.3
	20~24세	13.7	13.9	13.6	12.7
	25~29세	18.7	19.1	19.8	20.3
	30~34세	14.6	13.9	13.9	14.5
여성	19세 이하	2.9	2.9	2.6	2.2
	20~24세	17.1	17.3	16.9	16.2
	25~29세	17.6	18.1	18.6	19.3
	30~34세	12.1	11.8	12.0	12.4

표 V-7. 지역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단위: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41.5	40.5	38.5	37.9
부산	5.1	5.1	5.2	5.1
대구	3.2	3.3	3.4	3.3
인천	3.9	4.0	4.2	4.0
광주	2.1	2.2	2.3	2.3
대전	2.5	2.7	2.7	3.0
울산	1.8	1.6	1.7	1.6
세종	0.4	0.5	0.6	0.7
경기도	19.0	19.2	19.9	20.4
강원도	2.1	2.1	2.2	2.2
충북	2.5	2.7	2.9	2.8
충남	3.2	3.1	3.4	3.4
전북	2.1	2.2	2.5	2.4
전남	2.0	2.1	2.1	2.2
경북	3.2	3.1	3.1	3.2
경남	4.4	4.4	4.4	4.3
제주도	1.1	1.1	1.1	1.1

광역지역별로 상실자 비중을 보면, 서울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018년 37.9%에서 2021년 37.9%로 하락했다. 경기도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8년 19.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20.4%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세종으로 1% 미만이었으나 2018년 0.4%에서 2021년 0.7%로 증가했다.

4) 청년층 비구직자 규모

3개월 내에 취업한 청년 상실자는 2018년 740,084명에서 2020년까지 663,67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771,125명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2018년 59,934명에서 2019년 69,806명을 거쳐 2020년 83,5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의 상실자 수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효과와 2019년 구직급여 수급 제도 변화의 효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등록자 수도 2018년 340,118명에서 2020년 454,646명으로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등록자 수도 2018년 3,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0,73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구직자 수는 2018년 1,015,492명에서 2019년 1,021,765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 896,222명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872,261명이었다.

표 V-8.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3개월 내 취업 기준)

(단위: 명)

연도	취업	구직급여	구직등록	훈련	비구직
2018년	740,084	59,934	340,118	3,164	1,015,492
2019년	720,361	69,806	351,627	3,983	1,021,765
2020년	663,672	83,515	454,646	7,805	896,222
2021년	771,125	76,106	397,132	10,735	872,261

청년 상실자 중 6개월 내 취업한 청년층을 기준으로 분류한 상태를 보면 취업자 수는 2018년 958,288명에서 2020년 856,139명으로 감소한 후 2021년 969,587명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2018년 45,032명에서 2020년 68,48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 61,510명으로 감소했다. 구직등록자 수도 구직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추세를 보여 2018년 277,532명에서 2020년 394,030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336,571명으로 감소

했다. 직업훈련 등록자 수도 3개월 취업 기준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층 수는 2018년 875,061명에서 2019년 888,619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780,516명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750,616명이었다.

표 V-9.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6개월 내 취업 기준]

(단위: 명)

연도	취업	구직급여	구직등록	훈련	비구직
2018년	958,288	45,032	277,532	2,879	875,061
2019년	927,863	53,722	293,769	3,569	888,619
2020년	856,139	68,484	394,030	6,691	780,516
2021년	969,587	61,510	336,571	9,075	750,616

상실자 중 12개월 내 취업한 청년 취업자 수는 2018년 1,266,894명에서 2020년 1,202,388명으로 감소한 후 2021년 1,294,561명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2018년 27,699명에서 2020년 40,36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 35,488명으로 감소했다. 구직등록자 수도 3개월 상태와 6개월 상태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2018년 173,811명에서 2020년 241,759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205,068명으로 감소했다. 직업훈련 등록자 수도 3개월 상태와 6개월 상태와 비교하면 수가 감소했지만 증가 추세는 유사했다. 비구직 상태 청년층 수도 2018년 688,527명에서 2019년 708,784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617,429명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587,130명이었다.

표 V-10.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12개월 내 취업 기준]

(단위: 명)

연도	취업	구직급여	구직등록	훈련	비구직
2018년	1,266,894	27,699	173,811	1,861	688,527
2019년	1,236,767	33,071	186,668	2,252	708,784
2020년	1,202,388	40,369	241,759	3,915	617,429
2021년	1,294,561	35,488	205,068	5,112	587,130

24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한 청년층 수는 2018년 1,552,190명이었으며 12개월 기준과 비교해서 약 285천 명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1,549,869명으로 12개월 기준과 비교해서 313,102명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524,613명으로 감소했지만 12개월 기준과 비교해서 322,225명이 증가했다. 다만 2021년에는 1,475,775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21년 상실자 중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도가 2022년까지로 한정되어 다른 해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비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층 수는 2018년 495,798명, 2019년 501,731명, 2020년 436,877명, 2021년 489,707명이었다.

표 V-11.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24개월 내 취업 기준]

(단위: 명)

연도	취업	구직급여	구직등록	훈련	비구직
2018년	1,552,190	16,375	93,623	806	495,798
2019년	1,549,869	18,711	96,335	896	501,731
2020년	1,524,613	21,942	120,743	1,685	436,877
2021년	1,475,775	24,280	134,622	2,975	489,707

5) 청년층 비구직자 특성

청년 비구직자 특성은 장기 비구직상태에 있는 24개월 비구직자와 12개월 비구직자 그리고 단기 비구직상태에 있는 3개월 비구직자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4개월 동안 비구직상태에 있는 청년층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이들은 20~24세 남성으로 2018년 19.3%에서 2020년 19.9%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9.2%였다. 여성 20~24세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2018년 16.7%에서 2021년 17.2%로 증가했다.

20세 이상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구직 상태에서 차지한 비중은 감소했다. 이 중 남성 25~29세를 보면 2018년 14.6%를 차지했지만,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해 2020년 16.0%를 거쳐 2021년 17.0%를 차지했다. 반대로 19세 이하 남성 비중은 2018년 8.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 6.4%를 차지했다. 그 외 연령대들은 연도가 달라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V-12. 성별 · 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구직자 수		495,798	501,731	436,877	489,707
남성	19세 이하	8.8	8.1	7.7	6.4
	20~24세	19.3	19.5	19.9	19.2
	25~29세	14.6	15.9	16.0	17.0
	30~34세	11.1	10.8	11.2	11.9
여성	19세 이하	5.0	5.1	5.0	4.5
	20~24세	16.7	16.9	16.8	17.2
	25~29세	13.6	13.4	13.1	13.5
	30~34세	10.9	10.3	10.3	10.3

표 V-13.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단위: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41.8	39.0	35.8	35.5
부산	4.7	4.6	4.7	4.5
대구	3.3	3.4	3.5	3.4
인천	3.8	4.0	4.2	4.1
광주	2.1	2.3	2.4	2.4
대전	2.4	2.6	2.6	3.0
울산	1.4	1.4	1.4	1.3
세종	0.6	0.7	0.7	1.1
경기도	18.9	19.2	20.3	21.2
강원도	2.4	2.4	2.6	2.5
충북	2.3	3.6	4.0	3.5
충남	3.2	3.2	3.6	3.7
전북	2.1	2.3	2.7	2.6
전남	2.1	2.4	2.5	2.6
경북	3.1	3.1	3.1	3.2
경남	4.4	4.6	4.6	4.4
제주도	1.2	1.3	1.2	1.1

24개월 비구직자의 광역지역별 비중을 보면 상실자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 41.8%에서 2021년 35.5%로 하락했다. 그 다음이 경기도로 2018년 18.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 21.2%를 차지하였다. 인천은 2018년 3.8%에서 2021년 4.1%로 증가하여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이었다.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산과 경남으로 각각 4% 이상을 차지했다.

12개월 비구직자도 남성과 여성 모두 20~24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20~24세는 2018년 19.9%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는 20.7%로 증가했다. 여성 20~24세 비중은 2018년 18.3%에서 2019년 18.7%로 증가한 후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18.1%를 차지했다. 24개월 비구직자와 유사하게 20대 이후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25~29세 비중이 2018년 15.4%에서 2021년 17.3%로 상대적으로 비중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광역지역별 12개월 비구직자 비중을 보면 서울이 2018년 42.8%에서 2021년 36.1%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경기도는 2018년 18.8%에서 2021년 21.2%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지역이었다. 마찬가지로 인천도 2018년 3.8%에서 2021년 4.1%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 12개월 비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 이상이었다. 수도권 다음으로 부산이 4.5%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남도 4.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은 1%이하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V-14. 성별 · 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구직자 수		688,527	708,784	617,429	587,130
남성	19세 이하	7.5	6.9	6.7	5.8
	20~24세	19.9	20.2	20.7	19.3
	25~29세	15.4	16.5	16.3	17.3
	30~34세	10.6	10.2	10.6	11.7
여성	19세 이하	5.1	5.1	5.1	4.4
	20~24세	18.3	18.7	18.5	18.1
	25~29세	13.3	13.2	12.8	13.6
	30~34세	9.9	9.2	9.3	9.9

표 V-15.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단위: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42.8	40.2	37.1	36.1
부산	4.7	4.6	4.6	4.5
대구	3.2	3.4	3.4	3.3
인천	3.8	3.9	4.2	4.1
광주	2.1	2.2	2.3	2.4
대전	2.4	2.6	2.6	3.0
울산	1.4	1.3	1.4	1.3
세종	0.5	0.6	0.7	1.0
경기도	18.8	19.2	20.4	21.2
강원도	2.4	2.4	2.6	2.5
충북	2.3	3.3	3.6	3.4
충남	3.1	3.2	3.5	3.6
전북	2.0	2.2	2.6	2.6
전남	2.0	2.2	2.4	2.5
경북	3.0	3.0	3.0	3.2
경남	4.3	4.5	4.5	4.4
제주도	1.2	1.3	1.2	1.1

단기에 속하는 3개월 비구직자도 앞의 24개월과 12개월 비구직자와 추세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세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줄어들어 20~24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여성 20~24세가 2018년 19.3%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18.8%로 하락했다. 남성 20~24세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0년 19.4%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2021년에는 18.1%로 감소했다.

광역지역별 3개월 비구직자 비중을 보면 서울이 2018년 43.6%에서 2021년 37.4%로 감소했고 경기도는 2018년 18.9%에서 2021년 21.1%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인천도 2018년 3.9%에서 2021년 4.1%로 증가하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2% 이상이었다. 부산이 4.6%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남도 4.0%이상으로 수도권에 이어 3개월 비구직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6. 성별·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구직자 수		1,015,492	1,021,765	896,222	872,261
남성	19세 이하	6.0	5.6	5.3	4.6
	20~24세	18.7	19.0	19.4	18.1
	25~29세	16.7	17.6	17.6	18.5
	30~34세	10.9	10.5	10.8	11.7
여성	19세 이하	4.7	4.6	4.6	4.1
	20~24세	19.3	19.4	19.2	18.8
	25~29세	14.3	14.3	13.9	14.7
	30~34세	9.5	9.0	9.1	9.6

표 V-17.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단위: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	43.6	41.1	38.2	37.4
부산	4.7	4.6	4.6	4.6
대구	3.1	3.3	3.4	3.3
인천	3.9	4.0	4.2	4.1
광주	2.0	2.2	2.3	2.3
대전	2.4	2.6	2.7	3.0
울산	1.4	1.3	1.4	1.3
세종	0.5	0.6	0.6	0.8
경기도	18.9	19.3	20.5	21.1
강원도	2.3	2.4	2.5	2.4
충북	2.3	3.0	3.2	3.1
충남	3.1	3.1	3.4	3.5
전북	1.9	2.1	2.4	2.4
전남	1.8	2.1	2.2	2.3
경북	2.9	2.9	2.9	3.1
경남	4.0	4.3	4.2	4.2
제주도	1.2	1.3	1.2	1.1

6) 고용노동데이터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향

지금까지 고용노동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 비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을 식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났다.

첫째, 상실자들의 지역 식별에 문제가 있다. 상실자DB에 기재된 지역정보는 신고한 사업주 또는 사업장 정보이다. 따라서 상실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지역과 실제 일한 장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일한 지역은 울산에 있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상실자는 서울로 신고될 수 있다. 앞에서 상실자와 비구직자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이런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구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데이터 중 기본정보인 고용보험DB에는 학력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학력정보는 적절한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상담과정에서 비구직자의 요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교육데이터와 고용보험데이터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이 두 자료의 연계는 취업취약 청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숙련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매핑(mapping)에 필수적인 작업이며, 향후 비구직자를 추적(trackin g)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시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자료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시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상실자 중 비구직자가 누군지를 식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8월 시점에서 1년 이상 비구직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식별해야 한다. 이 식별과정에서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학업에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하며, 국내 거주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비구직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데이터 연계 이외에 국세청 정보와 주민등록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자료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고용특별법」 제16조(통합인력전선망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표 V-18. 고용데이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내용
청년고용특별법 제 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4. 교육-고용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방안²¹⁾

1) 단기적 방안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을 위한 단기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졸업 후 1년 이상²²⁾ 미취업상태에 있는 장기 니트 청년들을 발굴하는 방안이다. 관계부처 합동(2023.8.24)에서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 졸업 후 취업 지원 체계 강화, 고졸 채용 활성화, 고졸 맞춤형 취업 지원 인프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고용의 질 파악을 위해 공공 DB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통계조사의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고졸만 JOB(job.kosaf.go.kr)’이라는 고졸전용 취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나 주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장기 비구직니트를 위한 고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장기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로 모니터링하여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취업지원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학생 단위의 개인정보는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시범적으로 워크넷 DB, HRD, 고졸만 JOB 등 실시간 고용데이

21) 이 절은 김나영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였다.

22) 현재 본조사 후 18개월까지 취업후 상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유지취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²³⁾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일정시기 동안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을 한정하여 ‘고용부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체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한 후, 연계된 교육데이터²⁴⁾를 바탕으로 니트 청년층을 발굴한 후 고용부 DB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고용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대상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4년 조사 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체계가 고등교육통계조사와 취업통계조사 간 연계조사의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졸업생 인적정보, 이수 교육정보, 국내 고등교육기관 진학 정보 등 대학 재학 중 교육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졸업 후 상황정보, 취업 상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생의 이수교육정보 졸업 후 취업 정보를 연계 분석한다면,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간 고용 데이터와 연계한다면 단기 니트에서 장기 니트로의 전환, 니트 청년 변화 추이, 비구직자 니트 등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취업상황을 실시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방안은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데이터와 고용데이터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청년고용등록부(가칭)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통계를 작성·활용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효율적인 통계작성과 데이터 공유를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상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청년통계등록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23) 데이터 연계를 위한 다른 방식으로는 교육개발원의 오픈랩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부 DB 내 관련 정보를 가져와 교육데이터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데이터와 교육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결합 키(key)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4) 고등교육 진입에서부터 졸업 후 11개월까지 졸업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일자리이동통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통계청, 2022.12.21.).

현재 우리나라는 비형식교육 형태를 통한 교육·훈련 참여자 또는 취업 준비생 비율이 높은 국내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OECD 교육지표」 상에 니트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둔, 고립 청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니트 청년 리스트(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장기 니트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업이다. 현재 국제지표는 산출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국내 맥락에서의 니트 청년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와 실시간 고용데이터를 연계하여 청년고용등록부 통계를 산출한다면 직업계고 졸업자 중 니트 청년들의 특성, 장기 니트 규모 추이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니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장기적 방안

현재 수집 중인 교육데이터를 고용부 DB에 연계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목적 이외에 통계자료 활용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 <표 V-19>와 같다.

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데이터 연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기관 간 통계자료의 연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11조2」 및 「고등교육법 제 11조 3」). 따라서, 교육데이터와 고용데이터 간 데이터 연계 및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교육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 연계, 검증, 분석의 목적을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이외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 V-19. 교육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내용
<p>교육기본법 제26조의 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교육기본법 제26조의 3 (교육 관련 통계조사)</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초·중등 교육법 제11조2 (교육통계조사 등)</p>	<p>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고등교육법 제11조3 (교육통계조사 등)</p>	<p>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또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관련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민간에 이르는 전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을 위해 데이터 및 기관 연계, 지역기관 및 지역안전망 활용 등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07.19.).

그동안 니트 청년 발굴과정과 지원 방식이 기관과 사업단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 부처간 데이터 및 정책 연계에 앞서 부처 내 소통창구의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데이터의 경우 평생직업교육국의 직업교육정책과(「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안전정보국의 교육데이터담당관(「고등교육통계조사」), 인재양성정책과(「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각 조 사별 담당 부서가 구분되어 있어 교육부 내 업무 연계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민간기구 등에서 니트 청년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유사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처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및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별로 효과적인 진로교육에서부터 원하는 일자리로의 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부의 진로교육정보망과 고용부의 일자리정보플랫폼 등 진로교육과 고용 서비스 플랫폼이 구분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정보제공의 주체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단위로 진로 정보와 고용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앞으로는 학생 단위의 맞춤형 진로 및 고용연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진로정보 시스템’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 특성, 역량 정보²⁵⁾, 취업 상세정보²⁶⁾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2.12.27.). 향후에는 실시간 고용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별 진로 및 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로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25) 학교정보, 학과정보, 학생기본정보, 학생특성정보(학위, 졸업유예, 편입, 해외연수, 교직이수, 현장실습 등)

26) 건강보험 상세정보(직장가입여부, 사업자명, 사업장규모, 사업분류, 기업유형, 평균보수, 자격취득정보 등)

5. 시사점: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고용데이터와 교육데이터의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 추정과 니트 대상자 특성 파악의 가능성이다. 고용데이터와 교육데이터의 연계는 니트 규모의 추정, 특성 확인, 대상자 모니터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상황, 과정,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니트 청년 개입에의 과정에서 니트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규모 추정과 니트 대상자 특성 파악을 통한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강화 가능성이다. 직접 대상자를 특성할 수 없더라도 위험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서비스의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현황 조사를 통해 취약한 지역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과 특성에 맞는 청년들에게 정보 연계를 의뢰하는 방안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현황조사가 개인을 단위(unit)로 개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통해 취업지원과 연결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니트화 위험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 청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행정데이터를 통해 당사자 특정 후 아웃리치 가능성의 한계이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당사자들이 특정된다고 하여도 아웃리치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당사자들에게 닿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담 아웃리치 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에서의 책무성을 가진 조직이 전문화되는 경로와 함께 민간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기능을 의뢰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6장 닛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및
제언의 방향과 원칙
- 2. 세부 정책과제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정책제언²⁷⁾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및 제언의 방향과 원칙

이 연구의 목적은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니트 청년들이 조기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니트 청년의 개념과 현황, 니트 청년 발굴 관련 사례 검토, 니트 청년 발굴 현황 검토 및 당사자와 실무자 면접,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 방법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제언의 방향과 원칙 3가지를 정하고, 정책제언 4개 영역 총 1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한 제언의 방향과 원칙은 ① 사전적 예방 및 조기개입 원칙, ②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원칙, ③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보장 원칙이다.

첫 번째 사전적 예방 및 조기개입 원칙은 니트 청년은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회복 역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니트 청년 발굴을 예방적으로 하여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원칙은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 등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본인의 동의하에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사자를 발굴한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서비스의 종류가 있는지, 서비스와 서비스 연결 사이에 긴 대기기간이 있지는 않은지, 서비스 안내는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27) 이 장은 연구진의 작성 내용을 종합하여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기반한 참여가 당사자들의 서비스 수용성 및 동기를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보장 원칙은 니트 청년 발굴 이후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트 청년 발굴 이후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다시 니트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며, 공공서비스의 신뢰는 더 낮아져 추후 서비스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발굴 이후 유형이나 상태에 맞는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동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발굴 아이디어의 실현할 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세부 정책과제

이 연구의 세부 정책과제는 4개 영역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제언의 영역은 ①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② 발굴 방안 다양화, ③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④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등 4가지이다. 각 영역과 세부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 발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과제
영역 I.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영역 I-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지원 영역 I-2.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식도 제고
영역 II. 발굴 방안 다양화 영역 II-1.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 영역 II-2.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영역 II-3. 도래추천을 통한 발굴 영역 II-4. 민간협력체계를 통한 발굴
영역 III.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영역 III-1. 발굴 이후 서비스 연계 보장: 서비스 체계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III-2. 하나의 우산 속 니트 청년 정책: 서비스 체계의 통합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IV.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영역 IV-1. 맵핑: 니트 청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별) 영역 IV-2. 트래킹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니트 청년의 활성화 지원보장

표 VI-2. 정책제언 I: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정책과제	
영역 1.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영역 1-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지원	
영역 1-2.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식도 제고	

첫 번째 정책제언 영역은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이다. 청년기의 니트는 아동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학교를 떠나면서 발생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이 니트화의 경로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학교 밖 청소년에서부터 대학진학 청년에까지 ‘이행지원’과 ‘발생 일정 기간 이후 등록’ 체계를 마련하여 이행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물론 이는 EU YG(European Youth Guarantee)의 PES(Public Employment Service) 등록(registration)에 기반한 아이디어이지만 우리나라 청년이 어디에 등록하여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도적 기반 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국민 홍보는 본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여 개별 기관에서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청년 서비스 기관 실무자들이 제안한 방안이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VI-1. 학교 유형별 조기개입 및 연계 방안(안)

표 VI-3. 정책제언 II : 발굴 방안 다양화

정책과제
영역 II. 발굴 방안 다양화
영역 II-1.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
영역 II-2.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영역 II-3. 또래추천을 통한 발굴
영역 II-4.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발굴

두 번째 정책제언 영역은 ‘발굴 방안 다양화’이다. 앞서 청년 당사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홍보 방안은 온오프라인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반복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또래추천을 통한 발굴,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발굴을 제안하였다.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은 교육데이터와 고용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로 규모를 추정하고 대상자를 특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데이터 연계는 복잡한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 연계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청년들이 서비스 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고용노동부 자체 체계에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운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을 이용한 대상자들을 통해 발굴을 진행하는 것이 대상 효율성과 대상 효과성 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가 마련된다면 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니트 발굴 방식을 전환할 수 있고 여러 주체의 협조를 받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추정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아닌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제3의 기관에서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은 행정데이터를 통해 특정된 대상에 대한 아웃리치와 일반적인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사회복지 기반의 운영기관들에서는 큰 심리적 저항이 없으나 다른 배경의 기관들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화, 전문팀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과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발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편의점 홍보를 통한 발굴, 배달이나 택배의 전단이나 QR 코드(quick-response code)를 활용한 발굴 등 창의적 안도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래추천을 통한 발굴은 청년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서포터즈’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법이 있고,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4. 정책제언Ⅲ :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정책과제

영역 Ⅲ.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영역 Ⅲ-1. 발굴 이후 서비스 연계 보장: 서비스 체계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Ⅲ-2. 하나의 우산 속 닥터 청년 정책: 서비스 체계의 통합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세 번째 정책제언 영역은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이다. 발굴이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 이후 경로가 체계화되어야 하며, 발굴된 청년을 사례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우산 속에서 청년들이 사업을 인지하기 쉽고, 사업 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은 청년들이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나의 우산 속에서 선택 옵션을 넓혀가는 전략의 브랜드화, 통합화, 개별화가 필요하다.

Who?	What?	How?	Who Intervenes?
Young people in education and training	Prevention	Systematic guidance pro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s and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guidance providers, psychologists • Public Employment Services, Youth agencies: advisors/ mentors • Municipalities • Other specialised staff from health and social work services • Youth stakeholders (including youth NGOs)
NEETs	Early warning systems	Tutoring/ mentoring of pupils at risk	
	Outreach	Oth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Tracking measures	
		One-stop-shop centres	
		Outreach activities for hard to reach groups	
		Orientation and guidance	
	Early activation	Skills audits	
		Individual action plans	

* 출처: Santos-Brien, Ruth (2018). Effective outreach to NEETs - Experience from the ground. European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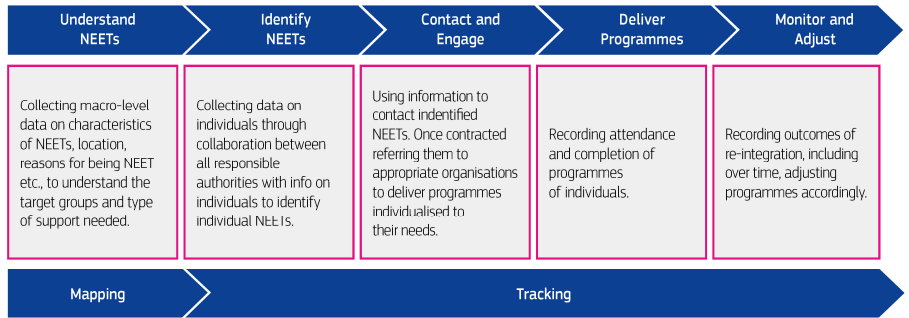
그림 VI-2. 유럽 청년보장제의 닥터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접근

표 VI-5. 정책제언 IV: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정책과제
영역 IV.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영역 IV-1. 맵핑: 니트 청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별)
영역 IV-2. 트래킹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니트 청년의 활성화 지원보장

네 번째 정책제언 영역은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이다. 발굴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기획 하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는 근거와 전달체계, 운영인력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니트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 특성을 밝히고, 접촉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고, 모니터링하고 정책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이러한 절차 속에서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guarantee)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다.



* 출처: Santos-Brien, Ruth (2018). Effective outreach to NEETs - Experience from the ground. European Commission

그림 VI-3. 니트 청년에 대한 아웃리치-연계-활성화의 맥락에서 맵핑과 트래킹(모니터링)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졸만 잡 (Job) 홈페이지. (<https://portal.kosaf.go.kr/CO/jcAction.do>)
- 관계부처 합동 (201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청소년정책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2023.7.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23.8.24.).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3년 7월 20일 검색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3년 7월 20일 검색.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 졸업예정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2.8.23).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3.4.24.).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3). 202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발간예정).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변금선, 정지운 (2022). 한국형 니트분석 및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로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eurofound.europa.eu/topic/neets>)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이슈브리프』, 1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학재단(2020). 직업계고 계속지원사업 안내.

정은진, 고혜원, 박상오 (2021). 졸업생 정보 활용을 통한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계청 (2022.12.21.). ‘청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가교’를 만들다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보도자료.

통계청 (2023.9.13.). 2023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하형석 (202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2020. 9. 제50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2022.12.27.).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보도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3a).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 직업계고 취업통계팀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3b).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후 상황조사 지침. 고등취업통계팀 내부자료.

Eurofound (2016), Exploring the diversity of NEET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Finn, D. (2010). Outsourcing employment programmes: contract design and differential pric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2(4), 289-302.

Jones, Randall S. & Beom, Jinwoan (2022). Policies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Korea. OECD working paper.

Maguire, S. (2015).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Recent policy initiatives in England and their effects.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0(4), 525-536. <https://doi.org/10.1177/1745499915612186>

Santos-Brien, Ruth (2018). Effective outreach to NEETs Experience from the ground.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Tosun, J., & Shore, J. (2017). The scope of European NEET outreach measures. Policy Brief V of the CUPESSE Project.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II: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
김성아·박광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욱·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I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운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운영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유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슝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인 쇄 2023년 9월 8일

발 행 2023년 9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